

내주부터 9억 이상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고가 1주택자 이사 4월20일까지만 만기 연장

‘12·16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20일부터 전세대출보증을 받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에 인정되던 수준의 예외적 실수요를 제외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일체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보증대출 이후 고가 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들여 전세기간이 끝난 뒤 이시할 경우, 기존에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구매 시점에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다만,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시행일 이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즉시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에 따른 고가 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을 만기까지 회수 유예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적기관 보증은 지난해 11

전세대출 회수 관련 규제 현황

※ ‘12·16 대책’ 2020년 1월 20일 시행

전세대출 이용자	- 비(非)고가 1주택자 - 무주택자
대출기간 중 금지행위	- 추가 주택 취득행위 - 고가 1주택 구입행위
대출회수 사유	- 다주택 보유 - 고가 주택 구입

※ 예외적으로 상속에 따른 보유는 대출회수 유예
※ 출처: 금융위원회

월부터 제한됐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자 증빙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 전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브리핑을 맡은 이명순 금융소비자 국장은 “전세대출금이 고가 주택 보유와 관련해 갭투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고,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는 건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가구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고가 주택에 대해선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라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고,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사 세부내용을 분석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공격적 중 공급을 제한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美·中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한 뒤 합의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약 18개월에 걸쳐 세계를 긴장시킨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은 조만간 2단계 협상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서정진 “세계 2위 의약품시장 中 직접 진출”

‘2030비전 로드맵’ 발표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건설
직판 네트워크 구축·위탁 생산도
47兆 규모 당뇨 시장 ‘출사표’

셀트리온그룹이 전 세계 2위 의약품 시장인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짓고 직판 네트워크를 중국까지 확장한다. ▶관련기사 12면
서정진(사진) 셀트리온 회장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메인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의 단

상에 오른 서 회장은 “현재 중국 정부와 최종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어 조만간 주요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중국 현지에 직접 진출하며, 12만 리터 규모의 중국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직판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16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계획과 대규모 위탁생산(CMO) 계획도 발표했다. 이미 셀트리

온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렘시마’가 2017년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중에선 처음이다.
이날 서 회장은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 계획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술 도입과 자체 및 공동 개발 방식으로 전 세계 400억 달러(약 46조5000억 원) 규모의 당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은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필두로 자체 기술력 및 제조생산 능력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며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폭스바겐·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법원 “1대당 100만원 배상하라”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조사와 수입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16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매수인 등 1299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9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1대당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폭스바겐그룹은 2015년 유로-5 배출가스 기준 적용 대상 디젤 차량 15개 차종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작동률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게 드러났다. 이들은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됐다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은 회사에 차량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차량 제조사 가운데 폭스바겐 아계와 아우디아계, 국내 수입사인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대상자는 인증 취소 시점(2015년 11월 30일)과 관계없이 신차 구매자나 리스 이용자 979명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광고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차량 제조사와 국내 수입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신차 매수인, 리스 이용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 판매사의 경우 표시·광고의 주체라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고차 매수인과 리스 승계인은 제작사나 판매사가 제공한 광고보다 차량의 상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며 “이들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바이오산업 ‘철벽규제’ 인정한 홍남기

유니콘기업서 간담회…“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 해소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바이오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며 “바이오산업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벤처기업 에이프로젠에서 진행된 바이오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항체신약과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연구·생산하는 에이프로젠은 국내 11번째, 바이오 분야에선 첫 유니콘 기업이다.

그는 “바이오산업은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자가 독식하는 승자 독식형 산업으로, 각국의 경쟁이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규제혁신, 연구개발(R&D), 금융, 데이터 인프라 등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바이오산업 사례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제로베이스 규제혁파 10대 산업에 바이오산업을 포함한다. 또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을 지난해 2조50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연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유망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위험·장기 투자라는 바이오 특성을 고려한 ‘바이오 산업 R&D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더불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펀드 조성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 보안 조치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만들 방침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정정보도문

‘업비트,北자금 유통 가능성’ 관련

본지는 2019년 4월 23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북한 자금 유통 가능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비트렉스 회원 계정으로는 업비트에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뉴욕금융감독국(NYDFS)이 비트렉스에서 발견한 북한 국적 계정의 접속 위치는 대한민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비트렉스 회원 가입 과정에서 국적을 대한민국(KOR)이 아닌 북한(PRK)으로 선택해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비트가 북한 자금 유통 경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뉴노멀시대 기존 틀 깨고 ‘게임 체인저’ 돼라”

‘상반기 LOTTE VCM’서 ‘생존을 위한 변화’ 강조

“현재 경제 위기, 과거와 전혀 달라” 상황별 철저히 대응
유연한 조직·‘위닝 컬처’ 무장... 과감한 미래투자 당부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강조한 롯데의 새해 비전은 ‘변화’였다. 변화를 강조한 경영전략은 지난해와 올해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지난해에는 위기라는 현상을 강조한 반면 올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행에 초점을 뒀다.

롯데는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2020 상반기 LOTTE VCM (V-value Creation Meeting, 옛 사장단회의)’을 개최했다. 이날 VCM에는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단, BU 및 지주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그룹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

는 유통 부문과 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을 돌아보며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우리가 극복했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지금,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둔화, 국가 간 패권 다툼,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 전 사업부문에서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가 일어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기존



의 틀을 깨고 시장의 물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 VCM에서 새해 화두로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인 ‘大象無形(大象無形)’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게임 체인저를 제시해 보다 적극적인 실행을 주문한 셈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상무형을 제시하며 미래의 변화는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생존을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상황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 회장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단행한 2020년 정기임원인사에서 50대 중반의 CEO를 대거 선임하고 젊은 대표와 신입 임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로의 세대교체를 추진했다. 이날 신 회장은 임원인사와 관련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젊은 리더들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인사 배경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원인사와 함께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부문별 역량 강화를 위해 롯데 지주를 비롯해 유통, 화학 등 그룹 주요 사업부문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신 회장은 이를 위해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주문했다. 신 회장은 “변화를 위해서는 직원 간 소통이 자유로운 유연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고 직원들에게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모든 직원이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정과 끈기로 도전해 나가는 위닝 컬처(Winning Culture)가 조직 내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문화의 변화와 함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도 강조했다. 신 회장은 모든 사업부문의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자원 배분과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전략 재검토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입사원과의 대화’

“행복 추구 위한 실천, 결국 사회 전체에 연결”

경영진·신입사원 700여 명 참여... 각본 없이 즉석 문답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공동체 행복 추구를 위한 신선한 자극을 불어넣어 달라.”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15일 서울 광장동 위커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 ‘회장-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1979년 시작한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그룹의 경영철학 등을 신입사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42년째다.

최 회장은 사전 각본 없이 실시간 SNS, 추첨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석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최 회장이 자주 찾는 맛집,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 즐겨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소개해 달라는 가벼운 질문부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까지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최 회장은 “(행복 추구를 위한 신선한 자극의) 실천이 SK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돈, 노력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아보고, 측정하고,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오늘을 만들어준 주변 모든 분, 특히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태원(가운데)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광장동 위커힐호텔에서 열린 ‘2020년 회장-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행복 추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SK그룹

고 당부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환영사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며 “여러분들이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충분히 즐기고, 또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더욱 큰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날 행사는 형식과 내용에서 기존 틀을 깨뜨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7미터였던 무대와 객석 간 거리를 올해는 2미터로 좁혔다. 무대는 객석 중앙에 배치했다. 복장도 자유로웠다. 최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신입사원들도 정장 대신 간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참석했다.

선배 구성원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직장 생활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너가 마련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동현 SK(주)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박성욱 ICT 위원장,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이형희 SV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과 신입사원 7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마음과 마음을 잇는다.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BAG - E9S9J61FE7 / E9S9J64FE4 / E9P5J62FE7 / H9BJ550FE3 / H9CJ552FE2

SHOES - WWB1951KR85 / WWB5405KR37 / WWB1959KR32 / WWB8773KR17 / WWB8772GS28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금강상품권

NCSI

남성 정장구두 부문 (16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1

구두·캐주얼화 부문 (21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www.kumkang.com

고객문의 1577-4884

간 보려고 흘렸나?... ‘지라시’ 따라가는 부동산 대책

신뢰 잃은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도 없고 시장의 신뢰마저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뜬소문으로만 취급했던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부동산 대책이 지라시의 꿈꾸니를 쫓는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한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청와대의 연이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 지난주 시장에 나돌았던 지라시 내용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시장에서는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및 백브리핑 계획 알람’이란 제목의 지라시가 떠돌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진 이 지라시에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 △초고가 주택 범위 12억 원, 고가 주택 범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지라시를 더 이상 지라시로만 치부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의 반응이다. 지난해 헛소문으로만 여겼던 지라시의 일부 내용이 실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상황을

“사실무근”이라던 분양가 상한제 뜬소문 돈 지 4개월 만에 현실로 ‘매매 허가제’도 발표 전 ‘입방아’ 시장선 ‘정부, 여론 떠보기’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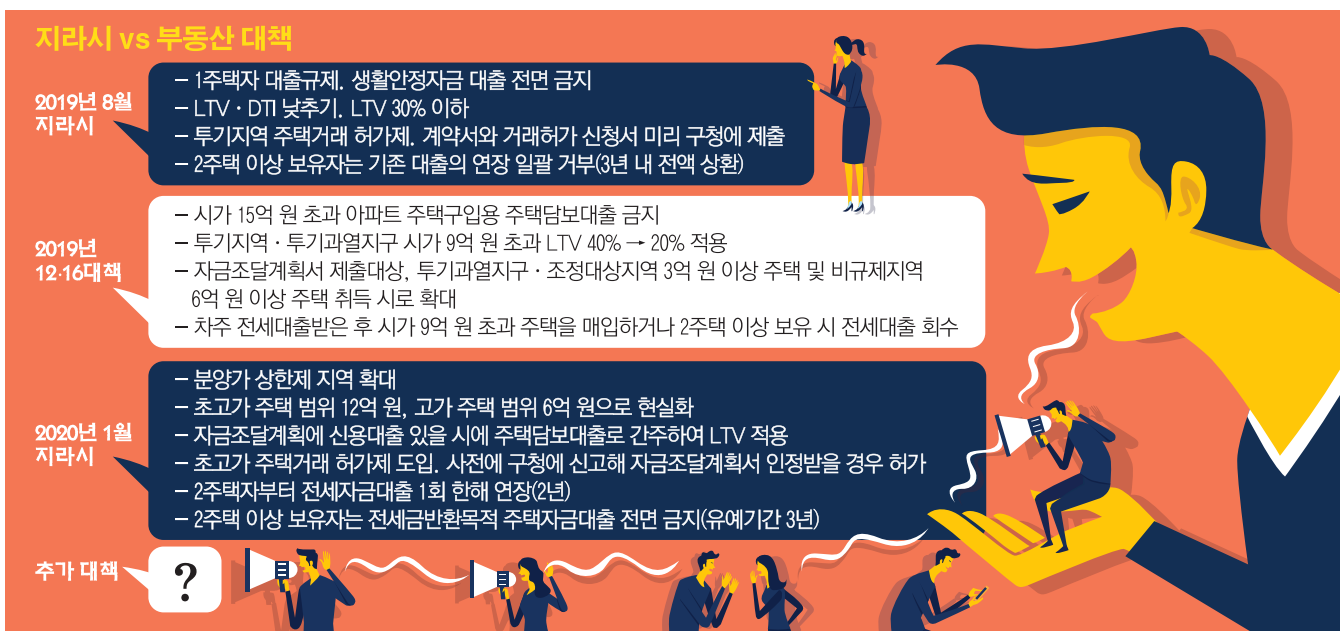
경험했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시장에서 부동산 대책을 담은 지라시가 나돌았다. 1주택자 대출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하향 조정, 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강도가 세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도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개월 후 지라시의 일부 내용은 현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로, LTV 하향 조정은 ‘시가 9억 원 초과 20%로 조정’ 등으로 구체화된 채 등장한 것이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떠돌 지라시가 실제 부동산 정책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라시로 시장을 ‘간 보고 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지라시가 시장을 선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책은 ‘뒷북’으로 전락하고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 분위기다.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4·15 총선 전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先)지라시, 후(後)정책 발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지라시의 내용이 정책 입안까지 이어진다면 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지 정책자의 말을 믿지 않아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까지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깜짝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불투명하게 발표하다 보니 지라시가 난무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정부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려면 더 투명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박종화 기자 pbell@



주택채권입찰제 관련 일지

2006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

2007년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시 일산2지구 휴먼시아 분양 시 적용

2013년

주택청약 규제 완화 후 폐지

‘로또청약’ 용납 않겠다는 정부 ‘주택채권입찰제’ 부활 가능성

무주택 서민 청약 기회 빼앗아

최근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공세를 강화하면서 서울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초유의 ‘슈퍼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조하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의 운을 뚫 지 하루 만인 1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정부가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초강력 대책을 꺼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재건축 연한 강화 등을 꼽는다. 특히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청약시장 안정을 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의 주택채권입찰제(이하 채권입찰제)의 부활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큰 경우 분양 계약자가 채권을 사게 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계약자에게 채권을 사게 해 시세 차익 일부를 정부가 흡수하는 것이다. 1순위 청약자 중 채권 매입(예정)액을 많이 써낸 순서대로 분양권을 준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택지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을 손봐야 한다.



주택채권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 간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은 사람이 채권을 매입해 시세 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 채권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된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시행된 이 제도는 이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고양시 일산2지구 휴먼시아 분양 당시 적용된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유명무실해져 결국 2013년 주택 청약 규제 완화와 함께 폐지됐다.

이 제도는 현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때보다 분양가가 더 낮아져 ‘로또 청약’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이를 막을 ‘패키지 정책’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청약자의 부담이 채권 매입액만큼 늘어나 사실상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금력 있는 부자들이 많은 매입액을 써내면서 청약시장을 ‘부자들의 잔치’로 전락시키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오늘의 체지방 관리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100% 유기농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녹차카테킨은 주원료인 녹차의 질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내산 녹차를 직접 재배합니다 독자적인 AP 녹차연구기술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현대인의 문제적 식습관으로부터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루 세 정 건강한 습관입니다

특허받은 녹차카테킨으로 한국인 건강맞춤



고열량 식이 섭취로부터 체지방 관리

메타그린 녹차 카테킨이 고열량, 고탄수화물 식단이 잦은 한국인의 체지방 관리를 도와 대사 건강을 케어합니다



대사 건강을 위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메타그린의 녹차추출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료로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세포 대사를 유지하는 항산화 작용

녹차추출물과 비타민C를 함유,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생성되는 유해산소로부터 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튜브에서 바이탈뷰티를 검색하세요

100% 유기농
국산 녹차

오실록 농장 직접 재배 관리



제품상단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車생산 10년 만에 400만대 붐과… 수입차 10%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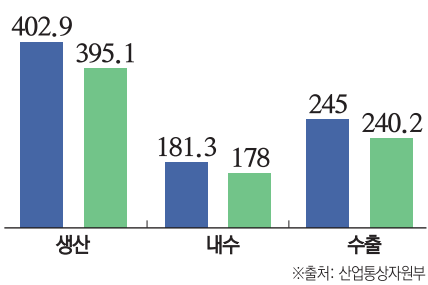
산업부, 작년 車 산업 동향
르노삼성·한국지엠 생산 차질 탓
수출량 7년 만에 68.7만대 감소
친환경차 선전에 수출액 5.3% ↑
누적 등록 대수 2367만대 넘어

국내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400만대를 밀돌았다. 반면 수입차 등록 대수는 처음으로 10%대를 넘기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9년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395만1000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09년 351만2900대를 기록한 이후 400만 대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했으나 지난해 400만 대가 무너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르노삼성 위탁생산(로그) 물량 감소, 한국지엠의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국내 생산설비 조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르노삼성 로그 위탁생산 감소와 한국지엠의 유럽 수출 중단 및 노조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현황
(단위 : 만 대) ■ 2018년 ■ 2019년



파업 등으로 인한 감소가 각각 전체 생산 감소의 47.8%, 44.8%를 차지했다.

자동차 수출 역시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요 감소, 일부 업체의 신차 출시 부재와 닛산 로그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240만2000대에 그쳤다. 2013년(-2.6%) 이후 7년 연속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308만9000대 수준이던 수출량은 7년 만에 68만7000대가 줄었다. 다만 수출량 감소에도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수출이 증가해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4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량은 소형 세단 판매 감소, 일부 업체의 신차 부족 및 수입

차의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8만 대에 그쳤다.

수입차는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해 10대 중 1대가 수입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367만7366대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47만5000대(2.0%) 늘었다. 신규 등록 대수는 181만1000대로 전년(184만3000대)과 비교해 3만1081대(1.69%) 감소했다. 이 중 수입차는 지난해 241만4187대로 처음으로 10% 비중을 넘겼다. 10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셈이다. 전체 수입 자동차 등록 대수 중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2017년 4.22%, 2018년 5.42%, 2019년 6.37%로 증가 추세다.

연료 종류별로 보면 휘발유는 1096만대로 46.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경유차는 996만대로 42.1%를 나타냈다. LPG 차량은 200만대로 8.5%였다. 휘발유와 경유차, LPG 차량 모두 점유율은 감소추세다.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0만1048대로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2.0%)과 비교하면 0.5%포인트(P) 늘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반려동물 보유세·부담금 부과 추진

정부 “동물 관련 전문기관 설치 재원 확보 위해”

정부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강아지 세금’으로 불리는 반려동물 보유세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도입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동물 관련 전문기관 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 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 적정 인력과 조직 형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전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선진국들은 보유세를 사용해 갈등을 해결하고 관련 비용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유기하는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보유세, 혹은 부담금의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2022년까지 진행하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정부 ‘디지털 혁신’ 3대 TF 구성

경제·산업 혁신 과제 발굴·추진… 데이터3법 뒷받침

기획재정부는 정권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범정부 협업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3대 전략 분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다. 이들 TF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의 효과가 국민 삶과 경제·산업 전반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데이터 3법 개정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으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

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데이터 3법 효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한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콘텐츠 창·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TF는 각각 기재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2차장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리아그랜드세일 사랑해요”

최윤희(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동대문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열린 외국 관광객 대상 쇼핑문화관광축제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은 최 차관이 행사 관계자들과 ‘손가락 하트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맨 왼쪽은 박미령 유니온페이 지사장, 맨 오른쪽은 한경아 한국방문위원회 사무국장. 연합뉴스

‘文정부 경제정책 만족’ 기업 10%도 안된다

현대研 경영환경 보고서…“규제·부동산 정책 가장 못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만족하는 기업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비중이 가장 높았고,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 대출 정책을 가장 못하는 분야로 꼽았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별로 만족 못 한다’ 35.3%, ‘매우 만족 못 한다’ 8.8%, ‘조금 만족한다’ 7.8%, ‘매우 만족한다’ 2.0%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 정책 중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규제정책’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 23.1%

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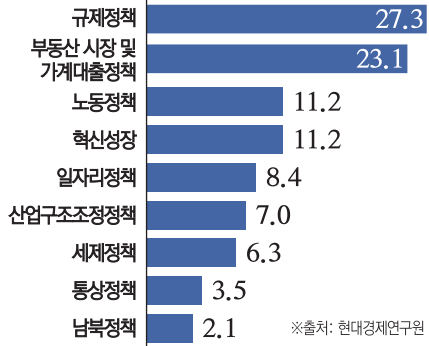
대부분 기업은 적절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0~3%’ 수준이라고 응답했으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애로 사항으로는 ‘추가고용 등 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지적했다.

국내 주요 기업 대부분은 올해 국내 및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불안 요인으로 ‘수출 경기 둔화’를 지적했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9.6%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고, 24.8%는 ‘2019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많은 기업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62.4%)’를 가장 우려되는 세계경제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

가장 못하는 정부 정책 (단위 : %)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리스크’ 등을 꼽았다.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해서는 ‘예상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43.0%로 가장 높았으며, ‘예상 수준에 다소 못 미쳤다’는 응답과 ‘예상보다 매우 나빴다’는 응답은 각각 31.8%와 11.2%를 기록했다.

주요 기업들은 2020년 기업활동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향상’이 5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들의 2020년 자금 사정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누락 여부 확인해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과 관련한 대출내역 등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착오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태)은 15일 “지난해 연맹을 통해 과거 놓친 연말정산을 신청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주택자금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놓친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자 최모(58세) 씨의 경우 2004년 1월 주택을 구입하면서 A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2005년 1월까지 이자상환을 하였으며 이후 B생명보험사로부터 현재까지 대환대출 형식으로 이자상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연말정산 때 B생명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등록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2014~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226만~346만 원의 누락액을 환급 신청하여 151만 원을 환급받았다.

또 무주택 근로자인 안모(36세) 씨는 2017년 6월 전세 이전을 하면서 C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연맹을 통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400만 원을 환급신청, 26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개인 간에 차입을 하더라도 연 2.1%이상의 이자를 주고 있다면 공제대상이 되므로 서류를 직접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휴전’

美·中 1단계 합의 정식 서명

지재권·기술이전 등 8개 챗터
추가관세 철회·기준관세 완화
이행 여부따라 재발 소지 다분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무역전쟁 ‘휴전’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그러나 민감한 현안들은 대부분 2차 무역 협상으로 미뤄진 데다 양측의 1단계 합의 내용 이행 여부에 따라 분쟁이 재발할 소지도 다분한 만큼 이번 합의에 대해선 ‘임시 봉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와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총 96쪽 분량으로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거시정책·외환 투명성, 교역 확대, 이행 강제 메커니즘 등 8개 챗터로 구성됐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특히 중국은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약 232조 원) 규모의 대미 수입 확대를 약속했는데, 이는 2017년보다 연간 대미 수입량을 50%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233억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내용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이 핵심)

미국의 관세 조치		- 작년 12·15부터 시행 계획이던 16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 보류 - 다른 1200억 달러 규모에 부과해온 15% 관세를 7.5%로 축소 - 2500억 달러 규모 상품 관세 25%는 유지							
중국의 이행 조치	추가 수입	- 2년간 2000억 달러 재화·서비스 추가 구입	품목	공산품	농산물	에너지	서비스	합계	
			2020년	329	125	185	128	767억 달러	
			2021년	448	195	339	251	1233억 달러	
	농산물 수입	- 2020년 365억 달러, 2021년 435억 달러 (2017년 240억 달러) -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가공육, 유제품, 쌀, 해산물, 과일·채소 등							
	기술이전	-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 ‘액션플랜’ 수립 등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침해 시 형사처벌 조치 - 제약업계 특허 보호조치 강화,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인수) 지시 관행 억제								
금융·환율	- 경쟁력 평가절하에 나서지 않고 외환 정보 공개 등 투명성 개선								
분쟁해결 절차		합의 위반 판단 시 실무·고위급 협의 진행. 미 해결 시 90일 이내 관세 재부과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한다. 품목별로는 2년간 서비스가 총 379억 달러, 공산품이 777억 달러, 농산물이 320억 달러, 에너지가 524억 달러에 각각 이른다.

그러나 명시된 문구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해당 목표치를 맞추려면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미국산 제품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경우, 미·중 무역분쟁 이전인 2016년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는 2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아메리치 아이치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구매 약속을 달성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미친 듯이 사들여야 한다”면서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상당 부분 줄여야 해 깨지기 쉬운 합의”라고 평가했다.

미국 측은 합의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대중 관세를 재부과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사항을 위반하면 90일 이내

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난제였던 기술 관련 민감한 핵심 현안들이 2단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갔다는 점도 변수다. 합의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강제 이전 등이 별도의 챗터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은 협상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경제 구조에 상당한 개혁을 요구하는 ‘정부 보조금’ 이슈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뇌관이다. 또 미·중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제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중국은 화웨이를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232兆 구매 약속 얻어낸 트럼프 관세폭탄 피하고 시간 번 시진핑

G2협상 1R “둘 다 위너”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2000억 달러(약 232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 구매 약속을 받아내 오는 11월 대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도 중국 경제 구조개혁과 같은 핵심 이슈를 뒤로 미루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영국BBC방송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와 시진핑 모두 1단계 무역합의의 승자”라고 분석했다. 이날 치러진 무역합의 서명식은 트럼프가 자화자찬(自畫自讚)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는 “공정 무역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거래다. 이번 행사는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순간”이라며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한다는 선거공약을 지켰다”며 자신의 성과를 뽐냈다.

BBC는 일각에서 이번 합의의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잇게 하고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도 “1단계 합의는 트럼프에게 완벽한 선거 홍보 자료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그 시점도 상원이 탄핵 재판을 시작하려는 시기와 맞물려 있

어 절묘하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얻은 성과는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중국의 강한 요구에도 이 카드를 지켰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1단계 합의 후에도 중국 제품 대부분에 25%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해제하면) 협상 카드를 잃어버린다”고 역설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재무장관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합의에서 추가적인 대중 관세 철회가 있을 수 있다”며 “만일 중국이 1단계 합의 이행에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재부과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과 미국, 전 세계에 유익하다”며 “우리는 더욱 큰 진전을 위해 무역협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리처드 닉슨의 외손자이자 브라이트스피어인베스트먼트그룹의 부회장인 크리스토퍼 닉슨 록스는 “단기적으로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줄어 부담을 덜었다. 트럼프는 유럽과의 무역협상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英·佛·獨에 “거부뎌 25% 車관세” ‘이란 제재 동참’ 압박한 트럼프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무기 삼아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에 대이란 압박 정책에 협조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들 3개국에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과 관련,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이 경고는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닌, 이들 3개국 당국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위협은 이들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기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들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은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이란이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핵합의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핵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3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에 의해 사망하자 ‘사실상 핵합의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간 양측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유럽 3개국도 전날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이들 유럽 세 나라가 핵합의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핵합의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푸틴 그림자’의 굴욕 퇴장

‘푸틴의 그림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15일(현지시간)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권력을 등에 업고 30년간 승승장구했으나 부패 연루 혐의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2012년 푸틴을 크렘린궁에 복귀시키려고 대통령직을 단임할 만큼 충성을 다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동일 인물의 대통령직 3연임 금지’를 포함한 부분적 개헌을 제안, 2024년 퇴임 이후에도 일인자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메드베데프가 2016년 11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해 골몰하는 모습.

예루살렘/AFP연합뉴스

아르헨 작년 물가상승률 54%… 30年來 최고

4년 만에 귀환한 좌파정권, 출범하자마자 ‘물가와와의 전쟁’

남미 2위 경제대국 아르헨티나가 살인적인 물가에 신음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19년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3.8% 오르며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48% 상승에 이어 물가고공행진이 지속된 것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심화했던 2002년의 26%보다도 훨씬 높다.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 물가상승률은 1976~1983년 독재 정권 당시의 84%였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짐바브웨, 남수단, 수단 등과 함께 악명 높은 인플레이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중남미에서는 장기 경제 위기

에 빠진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물가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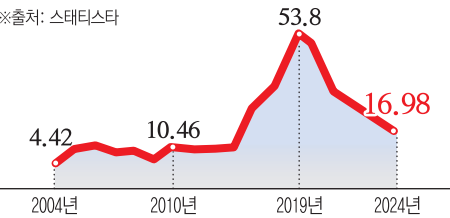
아르헨티나를 덮친 살인적인 물가는 작년 대선판까지 뒤흔들었다. 지난해 10월 27일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친시장주의자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을 꺾고 당선됐다. 4년 만에 이뤄진 좌파 정권의 귀환이었다.

전 정권의 실정을 받판 삼아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좌파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와와의 전쟁일 수밖에 없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부채 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는 선거 전부터 “지금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자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2019년 이후는 예상치

※출처: 스태티스타



신이 집권하면 아르헨티나의 막대한 부채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다시 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전 정부가 IMF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강도 높은 개혁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빚더미, 경제난을 남겼다고 판단해서다.

페르난데스는 또 소비를 통해 경제 성장에 시동을 걸 전망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하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뱃켓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허전쟁 주무대는 드론·인공지능 시장”

특허전쟁 10년 ㉠ 인터뷰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드론 시장 규모 7.8兆… 2026년 10배 이상 성장 전망
글로벌 물류 업계 AI 활용 ‘드론 배송 전쟁’ 이미 돌입
‘특허 괴물’ 최첨단 산업 집중 공격… 한국기업 대비해야

“향후 특허전쟁의 주무대는 드론과 인공지능(AI)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특허분쟁 역시 전쟁 수준으로 치열해질 수 있죠.”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 변리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미국 아마존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드론 택배’와 관련해 어마어마한 특허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미래 특허전쟁 키워드를 ‘드론’과 ‘AI’로 꼽았다.

2011년 4월 삼성-애플 간 특허전쟁을 기점으로 글로벌 특허분쟁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했으며,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또 다른 형태의 패러다임

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다.

전 변리사는 2003년부터 17년간 특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특허청에서 관련 분야 심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실제 글로벌 물류 업계에서는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배송기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드론’을 꼽고 있으며, 이미 ‘드론 배송 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세계 산업용 드론 시장이 2026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도 드론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전종일 리더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소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관제업무와 같은 드론 운용체제에서는 한 발 앞서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AI나 드론 등 미래 특허분쟁에서도 한국이 안전할 수 없는 셈이다.

전 변리사는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스마트폰 등 최첨단 산업의 중심에 있다 보니 집중 표적이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 일수록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허 괴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특허 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최근에는 미국 특허 괴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특허를 사들여 한국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우리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 변리사는 “특허 괴물을 상대하기 힘든 것은 이들이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며 “삼성이나 애플이 7년 만에 합의를 보게 된 것도 양측 모두 제품을 출시하는 같은 입장이다 보니 서로를 적당한 선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는 특허소송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정·합의

를 보게 된다”면서 “관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차원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피고 측의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소송금액의 3분의 1가량으로 최종 결론을 내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변리사는 “특허 괴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주요 특허 괴물 리스트를 작성해 목록을 마련하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전 변리사는 끝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특허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노래 한 곡을 만들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저작권 보호보다는 공짜로 노래 듣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휴대폰 컬러링처럼 처음부터 지식재산에 대한 유료화 정책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인, 집단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에서 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특허’ 받으려면

‘신규성·진보성·이용 가치’ 갖춰야 특허로 등록

발명 공지 이후엔 신규성 상실
간행물에 게재해도 등록 안돼
등록 대상·요건 꼼꼼히 체크해야

앞으로 차세대 신산업으로 무장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특허 등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업들이 특허 제품·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먼저 특허 등록 대상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 1. 방식심사 출원의 주제,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 점검
- 2. 출원공개 특허출원에 대해 그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할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기술 내용을 공개 정보에 게재해 일반인에게 공개
- 3. 실체심사 발명의 내용 파악,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 판단
- 4. 특허결정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
- 5. 등록공고 특허가 결정돼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개

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발명을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

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과 과거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는 ‘진보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을 의미한다. 계산법, 작도법, 암호 작성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리스트), 최면술, 과세방법 등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성 유무는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 출원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또 특허 등록이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됐거나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등은 특허 등록할 수 없다.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 시

다른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 난이도를 갖춰야 인정을 받는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운수업, 교통업 등에 해당되는 발명이어야 인정받는다.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 관련 발명은 제외된다.

특허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업, 개인 상관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 내용을 특허청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기술하고, 이를 특허청(온·오프라인)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신의 발명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h point

HYUNDAI
DEPARTMENT STORE GROUP



이 가방을 지구가 좋아합니다

현대백화점이 신소재 타이벡으로 친환경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지구를 덜 아프게 하는 에코백 사용을
고객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친환경 캠페인, Green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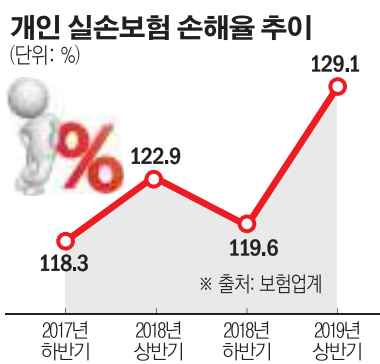
현대백화점은 포장재의 원재료를 개선하는 에코패키지 정책을 진행 중입니다
노 비닐&플라스틱 존을 준비하는 동시에 영수증과 종이광고물이 없는페이퍼리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는 전자영수증 발행 및 다양한 친환경 사업 지원을 통해 푸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 면세점 | 한성 | 현대리바트 | 현대HCN | 현대렌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더현대닷컴 | 현대Hmall | 더한섬닷컴 | H패션몰 | 현대위크몰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비급여 수가 정보 공유해달라” 보험사 사장단, 금융위에 건의

실손보험 손해를 130% 육박
“비급여 가격책정 기준 마련을”
의료업계 반발에 실현 미지수



보험사 CEO들이 공(公)·사(私) 보험 간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 정부지사로 쏠고 있는 가운데, 까맣게인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수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은행창구에서의 보험업무 위수탁 확대, 보장성보험 세제혜택 확대 등을 요구했다.

16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행된 보험사CEO-금융위원장 첫 회동에서 생명, 손해보험업계는 '건강보험 정보 공개'를 공통적으로 요청했다. '고무줄 잭대'인 비급여 가격 책정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유관부처와 협의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보험사기 대응과 펀데크를 활용한 신시장을 창출, 과잉진료 억제, 모럴해저드 방지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보험료에 대한 적정 가격을 책정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폭등의 원인이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 문제인 케어로 인한 풍선효과로 병·의원들이 수익을 확충하기 위해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진료가가 성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에 육박했고, 실적 악화까지 겹친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에게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과 의료량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오·남용진료가 발생하고 있어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이 때문에 비급여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의 경우 가장 저렴한 가격은 5000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50만 원에 달해 100배 차이가 났다.

다만 의료업계의 강한 반발로 현실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도의 의료법에
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항목과 진료비가 적힌 책자를
접수창구나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
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급 이상 기관은 전체의 3~4%에 불과
하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 것을 알려졌다. 또한, 의료
업계는 보험사의 사익을 위해 공적
데이터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계로 비용 등이 안정화 되는 건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 과잉 진료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성수 “저축銀, 저신용자 대출금리 낮춰야” 〈금융위원장〉

저축은행 대표 간담회서 밝혀
업계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졌다.

이날 저축은행 대표들은 지방 저축은행 경영여건 악화와 수도권권과 비수도권 은행 간 격차가 심화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와 지자체 재정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매물이 나오지만, 현재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3개 이상 소유 금지' 등 인수·합병 관련 규제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으므로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예금채무 관련 임원의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중과실'로 한정해 달라고 전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금감원 “CEO 징계 불가피” vs 은행 측 “법적 근거 없어”
DLF 제재심, 공방 속 결론 못내

30일 회의 다시 열기로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DLF 재제심을 열고 우리·KEB하나은행의 경영진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징계안을 확정 짓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술할 임직원이 많은 데다, 제재 당사자들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30일에 재심을 한 번 더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결론이 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원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격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

옹 부회장은 이날 법률대리인과 함께 제2심에 출석해 변론했다. 회의 참석 전 '징계안을 받아들일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두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게 은행 측 주장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해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뒤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18년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도 이 조항을 근거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해임 권고를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실패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손 회장의 연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난 한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됐지만, 손 회장은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주총 후에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그 전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가 내밀 카드는 행정소송밖에 없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우리금융은 증권·보험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인허가권을 지닌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KB 금융그룹 | 국민과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그랑드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조르주 피에르 쇠라

국민, 좋아요♥ 보험, 좋아요♥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소중한 내 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	--------------------------------------	---

KB 생명보험

보령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나와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시 보령금수가 거절되거나 보령금이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령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령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령사고 외에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령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보령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령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령수익자가 고의로 피보령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령자를 해친 경우 * 보령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제반사항을 위한 약 상봉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업종의 상비금 제18649호(2019.07.08)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1544-0114 * 생명보험업외 심의법 제2019-02195호(2019-07-09) *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생명타워 www.kbbi.co.kr * 고객센터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한국지엠, 노사 손잡고 SUV ‘트레일블레이저’ 공개

8100억 공적자금 투입 첫 모델
한국서 디자인·개발·생산 맡아

작년 10월부터 두 자릿수 성장
기아 셀토스·쌍용 티볼리 경쟁

한국지엠(GM)이 새로운 SUV 트레일블레이저를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카허 카젠 한국지엠 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가 ‘한국 사업장에 대한 GM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종이라며 기대 이상의 판매를 자신했다.

한국지엠은 16일 인천시 영종도에서 미디어 출시행사를 열고 트레일블레이저의 세부 사양과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카젠 사장은 “한국에서 디자인과 설계, 개발, 생산까지 이뤄진 트레일블레이저는 신제품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한국지엠의 수익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SUV 이쿼녹스의 중간 차급으로 GM의 차세대 파워트레인 기술을 비롯한 안전과 편의사양을 갖췄다. 국내에서는 기아차 셀토스, 쌍용차 티볼리가 경쟁 차종으로



카허 카젠(맨 왼쪽) 한국지엠 사장과 김성갑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이 16일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출시행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분류된다. 한국지엠은 이 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급이라고 강조했다.

시저 톨레도 영업 서비스 마케팅 부문 부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존의 세그먼트를 초월해 B와 C(중형) 세그먼트를 아우르는 독특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레일블레이저가 트랙스, 이쿼녹스의 판매량을 잠식할 가능성에 대

해서는 “워낙 독자적인 특성이 많아 판매 잠식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진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노동조합,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도 참석해 화합의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 초 임기를 시작한 김성갑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을 비롯해 협력사 대표인 문승 한국지엠 협신회 회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당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도 자리했다.

김성갑 노조 위원장은 “작년까지는 군산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등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트레일블레이저의 생산이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며 “한국지엠이 정부에서 받은 8100억 원의 공적 자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위원장 출신인 홍영표 의원

은 “선구자라는 이름처럼 트레일블레이저가 한국지엠이 새롭게 도약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대형 SUV 트레비스가 출고되기 시작하며 점진적인 판매실적 반등을 이뤄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내수 판매량은 7만6471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지만, 10월부터는 석 달 연속 두자릿수 판매 회복세를 이어왔다. 12월에는 작년 월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트레일블레이저가 회사의 실적 개선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대가 1995만~2620만 원으로 책정된 점도 긍정적이다. 경쟁 차종 셀토스(1965만~2865만 원)와 비교하면 기본 트림의 가격이 더 비싸지만, 셀토스의 주력 트림 가격군이 2000만 원대 초반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승산 있는 수준이다.

트레일블레이저가 갖춘 GM의 차세대 파워트레인 역시 강점이다. 트레일블레이저는 라이트사이징 기술을 적용한 1.2리터 가솔린 E-터보 프라임 엔진과 1.35리터 가솔린 E-터보 엔진을 얹었다. 두 엔진은 제3종 저공해 차량 인증을 받아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어 엔트리 SUV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유창욱 기자 woogi@



배터리·모터를 패키지로 묶고 차체를 따로 올리는 스케이트보드형 전기차 이미지.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 차체 교환 자유롭게 ‘스케이트 보드형’ 전기차 만든다

英 어라이벌에 1270억 투자
배터리·모터 플랫폼화시켜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

현대·기아자동차가 유럽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에 나선다. 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영국 상용 전기차 전문기업 ‘어라이벌(Arrival)’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8000만 유로와 2000만 유로, 총 1억 유로(약 1270억 원)를 전략 투자한다.

16일 현대·기아차와 어라이벌은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장, 데니스 스베르드로프(Denis Sverdlov) 어라이벌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및 전기차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어라이벌의 강점은 모듈화된 구조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에 있다.

2015년 설립된 어라이벌은 밴(Van), 버스 등 상용차 중심의 전기차 개발 전문 기업이다. 본사가 위치한 영국 이외에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에 공장과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양측은 배터리와 구동 모터를 표준화한 모듈 형태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차체를 올리는 방식이다.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구동 부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여러 차종에 공유함으로써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별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맞춤형 차종의 제작이 가능해 차량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어라이벌은 이 기술을 활용해 화물 운송용 밴을 개발하고, 유럽 내 다양한 물류 업체들과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전세계적인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소화물 배송을 위한 도심 내 차량 진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상업용 친환경 차량의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물류 운송용 글로벌 소형 전기 상용차의 시장 규모가 올해 31만6000대에서 오는 2025년 130만7000대로 매년 33%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은 “유럽은 환경규제 확대에 따른 친환경차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어라이벌과 상용 전기차 공동 개발을 통해 유럽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SK이노, 美 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

‘3세대 전기차 시대’ 본격 대비
50억 달러 투자 현실화 가능성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조지아 공장을 1회 충전으로 500km를 갈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시대 개막의 전조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급성정하는 미국 시장을 감안해 단계별로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1차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말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시에 연간

9.8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2025년까지 누적 약 1조9000억 원(16억7000만 달러)을 투자해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해 3월 기공식 이후 내년 하반기 기계적 완공을 마치고 2022년 초 본격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2018년 11월 ‘SK의 밤’ 행사에서 “사업이 잘되면 50억 달러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6000명 채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집적해 본격적인 ‘3세대 전기차’ 시대를 열 계획이다. 3세대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 본격적 전기차 보급을 이끌 ‘게임 체인

지’로 주목받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년 중순부터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2년에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에서 단일 규모 최대 공장을 성공적으로 가동함으로써 충남 서산, 중국, 헝가리 등 글로벌 생산 설비를 구축, 2025년까지 100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시장 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모빌리티 시장에서 배터리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기간을 사업 플랫폼화하는 BaaS(Battery as a Service) 모델을 개발해 배터리 생산에서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신형 에어컨, 로봇이 필터 자동 청소

2020년형 ‘휘센’ 클린봇 탑재

LG전자가 청정관리 기능과 냉방성능을 강화한 에어컨 신제품으로 올해 여름 시장을 나선다.

LG전자는 16일 2020년형 ‘LG 휘센 씽큐 에어컨’ 신제품 29종을 선보이고 같은 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이번 신제품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4단계 청정관리 △에너지 효율은 유지하면서 1평 더 넓어진 냉방 면적 △에어컨이 스스로 운전모드를 최적화하는 3세대 인공지능 스마트케어 △업계 최고 수준의 인버터 제어 기술로 구현한 에너지 효율 등이 특징이다.

LG 휘센 씽큐 에어컨은 공기가 들어오는 필터부터 바람을 내보내는 송풍팬까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더 과학하게 유지해주는 4단계 청정관리 기능을 탑재했다. 필터, 송풍팬, 열교환기 등 주요 부품을 알아서 관리해준다.

LG전자는 초(超)프리미엄 제품인 LG 시그니처 에어컨에 처음 적용했던 필터 클



린봇을 적용했다. 하루 8시간씩 사용할 경우 필터 클린봇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에어컨의 극세필터를 자동으로 청소한다. 사용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먼지통만 비워주면 된다. 신제품은 에어컨 내부에서 바람을 만들어주는 송풍팬을 UV LED 살균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UV나노(UVnano) 기능도 적용했다.

신제품 29종의 가격은 출하가 기준 285만~540만 원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현대로템 ‘비상 경영’ 선포
이용배 사장, 매주 현장점검

현대로템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와 수익 확보를 중심으로 한 내실경영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5일 창원공장에서 전사 임원, 각 주요부서 팀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영쇄신을 위한 비상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2016년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현대로템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에 대한 신뢰 구축 △구성원 의식개혁 △조직역량 결집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실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용배 대표이사를 포함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수익성 개선, 운전자 산 매각, 조직문화 개선, 사업역량강화 등 각 분야별로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조직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한편 이용배 사장은 선포식 이후 매주 창원공장을 찾아가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현장경영을 펼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신한카드의 3 초




초연결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드립니다

신한PayFAN


초협력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MySHOP # Partner


초확장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My 송금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초연결

상품 서비스와 마케팅을 연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협력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갑니다

초확장

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 금융을 선도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1223-Exn-001호(2019.12.23)

Lead by 신한카드

떡국 대신 스테이크

유통가 스테이크용 육류·서양식 HMR 판매량 30%대 증가
식습관 서구화에 빙스 바비큐 폭립·매일유업 스프 선물세트

설 식탁이 달라진다. 과거 설에는 떡국과 갈비찜, 불고기 등 한식을 주로 즐겼다면 서구화된 식습관이 확산되면서 설 식탁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스테이크용 육류와 미트볼, 밀피유, 파스타 등 서양식 가정간편식(HMR)의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설 명절 가족들과 식사거리를 1~2주 정도 미리 구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설 식탁에서 떡국 대신 스테이크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이마트에 따르면 9일부터 15일까지 안심·등심 등 스테이크용 육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이마트는 최근 스테이크용 육류를 찾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올해 설 명절선물세트로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전용 세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서양식 HMR 제품 판매량도 늘었다. 이마트 '피코크' 라인 중 밀피유나베, 감바스, 폭립, 파스타, 스테이크 등 서양식 판매량도 같은 기간 31.4%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지역 맛집의 노하우를 담아 선보이는 올해 설 선물세트에 압구정동 '우텐다'가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신세계백화점이 선보인 '우텐다 시그니처 세트(2.0kg)'는 1++한우를 원료로 한 우텐다의 안심 스테이크, 채끝·등심 스테이크로 구성됐다.

온라인몰에서도 서양식의 약진이 이어졌다. 쿠팡이 최근 1주일 동안 HMR 카테고리 매출 순위를 집계한 결과 CJ고메 토마토 미트볼(200g, 2개)이 전체 판매량 1위에 올랐다. 미트볼에 이어 2위에 오른 제품도 CJ고메 한박스테이크(200g, 2개)로 역시 서양식 메뉴였다.

SSG닷컴은 최근 1주일간 전년 동기 대비 HMR 상품 매출이 29.3% 신장한 가운데 'HMR 스테이크' 매출은 35.8% 늘어나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SSG닷컴은 서양식 HMR의 수요가 매년 늘자 아예 이번 설 선물세트에 밀키트로 유명해져 '프레시지 함박스테이크 선물세트'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SSG닷컴 'HMR 스테이크'.

이처럼 스테이크와 서양식 메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 외식 기업들도 관련 메뉴를 강화하거나 설 선물세트로 선보이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밀키트 전문 브랜드 '죽킷' 전용 앱을 론칭하고 제철, 시그니처, 집밥, 스트레스 해소, 한식 등 테마별 메뉴에 글로벌 카테고리도 추가했다. 글로벌 메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패밀리레스토랑 빙스는 바비큐 폭립 3개를 보냉가방에 담은 '바비큐 폭립 선물세트'를 설 선물로 내놔다. 오리지날·스파이스 2종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간편한 조리가 가능하다.

매일유업은 자연치즈를 더한 '상하목장 슬로우키친 스프'를 론칭하고 이번 설에 양송이크림스프와 단호박크림스프, 크림차우더스프 등 서양식 스프 3종을 각 3팩씩 담은 설 선물세트를 내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 증가, 다양한 미식 경험 등으로 한식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요리를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HMR 시장에서도 서양식 메뉴가 판매 순위 상위를 잠식한 지 오래"라며 "명절 선물로도 서양식 HMR 선물세트가 등장하고 스테이크나 폭립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설 식탁 = 한식'이라는 편견이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희희 기자 yhh1209@

달라지는 설 밥상

“램시마SC 발판 세계 바이오 시장 새판 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JP모건 콘퍼런스서 로드맵 발표
“바이오시밀러 퍼스트무버 넘어 게임 체인저 정조준” 청사진

셀트리온그룹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바이오시밀러를 선점 공략하는 '퍼스트무버'를 넘어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전략 제품과 주요 파이프라인, 판매 전략 등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담은 '2030 비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바이오시밀러와 프라임시밀러, 신약, 유·헬스케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본격적인 중국 진출 계획이다.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이다. 2017년 2118억 달러(약 260조 원)에서 2020년 3305억 달러(약 380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전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GDP 대비 헬스케어 지출액 비중이 아직 미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곳에서 셀트리온은 '램시마SC'로 유럽에서 시작한 직판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앞서 서 회장은 유럽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남미, 미국, 캐나다까지 직판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12만 리터의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건설, 위탁생산(CMO) 사업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4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당뇨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사노피의 장기 지속형 인슐린 '란투스'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달아올랐다. 현재 릴리·베링거인겔하임의 '베이사글라'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기술 도입과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키울 계획이다.

인플릭시맙 최초 피하주사 제형 바이오의약품 램시마SC는 셀트리온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램시마SC는 전체 50조 원 규모의 TNF-α 시장에서 10조 원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셀트리온은 다음 달 말 독일을 시작으로 램시마SC의 글로벌 직판을 가능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역량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문을 연 퍼스트무버 효과와 연구·개발부터 임상, 허가, 제조, 판매 등 전 분야를 그룹 내에서 해결하는 데 따른 비용 절감, 강력한 장기 R&D 파이프라인"이라며 "이제 퍼스트무버를 넘어 '게임체인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유희은 기자 euna@



청정 북극해에서 자란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

이마트가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활(活) 킹크랩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16일부터 22일까지 5톤 물량의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을 20% 할인한 6990원(100g)에 판매한다. 마리당 1.5~2.5kg으로 2~3인이 먹기 적당한 크기다. 북극해와 바렌츠해의 깨끗하고 차가운 바닷물에서 천천히 자라 살이 꽉 차 있고 달달하며 육질이 탱글탱글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이마트

스타벅스 “BTS와 한국 청년들의 꿈 응원”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방탄소년단과 콜라베이션한 퍼플 색상의 음료 1종, 푸드 5종, MD 상품 6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Be the Brightest Stars'를 테마로 한 새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21일부터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캠페인 시즌 동안 스타벅스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품목의 판매 수익금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청년자립 프로젝트' 후원 사업을 위해 기부한다.

스타벅스는 8일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MOU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통해 스타벅스만의 차별화



된 청년 지원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블루밍 퍼플 뱅쇼'를 비롯해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형상화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블루베리 스타 마카롱', '퍼플 베리 치즈 케이크', '퍼플 스타 컵 케이크' 등 화려한 색상의방탄소년단과의 콜라베이션 푸드 5종을 선보인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리아, 업그레이드 '비건 버거' 출시

리아 미라클버거, 패티·빵·소스까지 '식물성'

100% 식물성 패티로 만든 롯데리아의 '리아 미라클버거(가칭)'가 다음 달 정식 출시된다. 이는 지난해 일부 매장을 통해 선보인 테스트 제품을 보완한 것으로, 롯데리아가 비건 시장 선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비건은 육식을 피하는 식습관을 넘어 동물성 재료나 동물 실험 과정을 거친 재료나 성분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완전한 채식주의'를 뜻한다.

비건 트렌드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시장조사 기관 얼라이드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42억 달러(4조9000억 원) 수준이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은 10여 년 후인 2026년 2배(81억 달러·9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채식 인구도 100만~150만 명(한국채식연합 추산)으로 2008년 15만 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롯데리아의 식물성 버거 출시는 이 같은 시장 성장세에 따른 것이다.

롯데리아는 지난해 6월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100% 식물성 패티로 만든 '리아 미라클버거'(△리아미라클 오리지날 △리아미라클 오니언)를 선보였다. 롯데리아는 이 제품을 직영점인 신천점, 건대점, 숙대점 등 3개 점포에서 약 20일간 테스트 판매하며 소비자 반응을 확인했다.

테스트 후 수개월 연구 끝에 새롭게 출시되는 리아 미라클버거는 좀 더 '비건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패티뿐 아니라 버거에 사용되는 번스(둥근 빵)와 소스에도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비건 소비자 유인을 위해 더욱 진보한 형태의 식물성 버거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출시된 테스트 제품의 경우 "패티를 제외한 소스 등의 재료에 동물성 성분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일부 건 소비자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버거도 '100% 식물성 버거' 타이틀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롯데리아 관계자는 "실제로

매장에서 이 메뉴만을 위한 조리 기구 사용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동물성 메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조리 기구를 (식물성 메뉴에도) 같이 사용하면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때문에 '100% 식물성 버거'로 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식품의 조리, 유통, 취급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의 형태를 '교차오염'이라고 부른다.

롯데리아는 일반 소비자와 함께 '플렉시테리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플렉시테리언'은 평소 채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육류나 해산물을 먹는, 가장 낮은 단계의 채식주의의 유형을 뜻한다.

한편,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계도 국내에 식물성 버거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거킹은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식물성 고기 패티를 활용한 임파서블 와퍼를 출시한 바 있다. 맥도날드도 지난해 식물성 대체육 전문업체 비온드미트와 손잡고 식물성 고기를 패티로 사용한 햄버거를 북미 시장에서 시험 판매한 바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발걸음은 가볍게 마음은 넉넉하게

경자년 '쥐띠해'가 밝았다. 12간지 중 첫 번째인 쥐띠해답게 올 설 역시 예년보다 이른 편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까지 일러지면서 마음은 조금 급하지만 하다. 신년 업무를 시작하고 올 한 해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이른 설 준비까지 해야 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부모님과 지인을 위한 선물을 고민할 시간조차 넉넉지 않은 상황일 수 있지만 이른 설 준비를 도와줄 든든한 도우미가 있다. 유통업계는 예년보다 이른 설을 맞아 지난

해 말부터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선물받는 이에 따라 맞춤형 선물도 추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부터 설 준비로 고생한 아내에게 줄 화장품, 설 명절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음식까지 유통업계가 준비한 맞춤형 선물로 설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고향 가는 발걸음은 가볍게, 가족을 위한 마음은 넉넉하게 해주는 유통업계의 추천 선물을 만나보자.

이마트 금액대별 선물세트

3만 원대 와인에서 20만 원대 한우까지

이마트는 올해 설을 맞아 금액대별로 이마트만의 차별화된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우선, 5만 원 미만 선물세트로는 '가성비 와인' 선물세트가 대표적이다. 국민와인으로 인기를 끈 호주산 '피터르만 바로산 세트'는 750ml 2병에 3만9600원에, 프랑스 최고의 유기농 와인 브랜드 사푸티에의 '엠 사푸티에 세트'는 3만9800원에 판매한다.

프리미엄 식품 브랜드 '피코크'에서 선보이는 통조림·조미료 세트도 눈길을 끈다. 국산 참기름·들기름과 제주산 볶은 통참깨로 구성된 '피코크 참기름들기름 세트 1호'는 행사 카드 구매 시 20% 할인한 4만3840원에, 제주 흑돼지햄과 제주 참기름으로 구성된 '피코크 제주 훈합세트'는 행사 카드 구매 시 20% 할인한 3만9840원에 판매한다.



또한 미쉐린(미슐랭) 맛집 '금돼지식당'과 협업체 작년 사전예약기간 완판을 기록했던 '피코크 금돼지식당 세트'는 작년 대비 준비 물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행사 카드로 구매 시 10% 할인을 적용해 3만5820원에 구매 가능하다.

5만~10만 원대 선물로는 수산세트가 대표적이다. 청정 제주의 수산물로 구성된 더욱 고급스러운 '제주 옥돔갈치 세트'는 행사 카드 구매 시 30% 할인한 9만9400원에 판매하며, 국산 참조기 1kg(10미)으로 구성된 '특선 영광참굴비 1호'는 카드 할인 20% 적용해 8만8000원에 선보인다.

10만 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선물세트의 꽃 '한우'가 가장 인기다. 구이용과 국거리·불고기 각 1kg으로 구성해 가장 활용도가 높은 '피코크 한우 냉장 1호 세트'는 행사 카드 구매 시 10% 할인한 22만50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

명절 필수품 갈비·국거리 한번에

홈플러스는 26일까지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1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부정정탁 금지법 선물가액인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 구색을 전년 설 대비 7% 늘리고 1+1 및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상품으로 정육은 명절 수요가 가장 많은 갈비와 제수용 정육으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 냉동세트'(갈비찜용 0.9kg, 국거리 0.8kg, 불고기 0.8kg, 14만8000원)를 비롯해 'LA식 꽃갈비 냉동세트'(미국산, 1.4kg*2, 10만3200원), '전통양념소불고기 냉동세트'(미국산, 광양식 소불고기 1kg, 연양식 소불고기 1kg, 7만 원)를 마련했다.

과일은 100% 비파괴 당도선별로 엄선한 '명품명선 나주배 세트'(7~10입, 5만9900원)와 '명품명선 사과 세트'(11~13입, 5만9000원)를 선보인다. 수산에서는 산소포장 특허 기술을 선도를 높인 '건강을담



은 완도전복세트'(7~9마리, 1kg, 9만9000원), '바다속그대로 완도전복세트'(10~13마리, 1kg, 4만9900원)를 시중 대비 25% 저렴하게 마련했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식에선 '잣품은 고급견과 세트'(잣 25g*12, 땅콩 25g*12, 대추칩 10g*12, 마카다미아 25g*12, 호두 20g*12, 6만9900원)를 5000세트 한정으로 백화점 동일 구성 상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롯데백화점 미식이 위한 선물세트

노포 맛집 인기 메뉴 푸짐하게 담았다

미식이 지인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매해야 한다면 롯데백화점이 제격이다.

롯데백화점은 23일까지 판매되는 설 선물세트에 국내 미식가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이는 최근 요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도 단순한 종류의 상품이 아닌, 맛과 품질을 살린 이색적인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노포 맛집 선물세트로 34년 전통의 한우 전문점 '벽제갈비'의 '벽제 감사 세트(양념갈비 약 3.5kg)'를 35만 원에, 1981년 첫 매장을 오픈해 대한민국 100대 한식당으로 선정된 갈비 명가 '송추가마골'의 '스페셜 가마골 세트(2.4KG)'를 17만5000원에, '스페셜 늘품구이(2.1KG)'를 11만3000원에 판매한다.



이밖에 30년 전통의 숯불갈비 전문점 '강강술래', 1976년 오픈 이후 약 40년간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급 한식당 '삼원가든', 꽃게 박사 김철호 대표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전북 군산의 향토 음식점 '계곡가든', 어머니의 30년 전통 장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계방식당', 전남의 유명 종가 '남파고택' 등 다양한 노포 음식점의 세트가 고객들을

맞이한다.

이외에도 최근 1인 가구 및 혼밥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날개 포장의 편리성을 추구한 한우 세트인 '한끼밥상 정육소포장 세트'도 판매한다. '한끼밥상 스테이크 세트(1등급 등심·채끝 스테이크 각 0.2kg*6입)'를 49만8000원에, '한끼밥상 한우 실속 혼합 세트(1등급 등심·국거리 각 0.2kg*5입)'를 29만8000원에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선물세트

암소 1++ 등급 명품 한우 물량 늘려

현대백화점은 24일까지 서울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2020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본판매 기간 전국 15개 점포별로 140~200평 규모의 특설매장을 열고, 한우·굴비·청과 등 신선식품과 건강식품·가공식품 등 총 900여 개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본판매 기간에는 명절 대표상품으로 꼽히는 프리미엄 한우를 대거 준비했다. 특히, 50만 원대 이상 프리미엄 한우 세트는 지난해 설보다 물량을 30% 늘려 총 5000세트 준비했고, 냉장 한우를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역대 최대 규모(4만6000세트)의 냉장 한우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전국의 한우 중 단 3% 내외의 엄선된 암소 1++ 등급만을 사용한 '현대명품한우 프리미엄(150만 원, 구이용 갈비·등심·살치살·채끝 스테이크 등 총 7.6kg)', 1++등급 암소 중 가장 높은 마블링(근내지방도) 등급을 받은 한우로 구성된 '넘버 나인 세트(100만 원, 등심·채끝 스테이크 등 총 3.6kg)' 등이 대표적 프리미엄 상품이다.

굴비도 프리미엄으로 차별화한다. 신안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가마에서 구워낸 '죽염'으로 밑간한 '영광 참굴비(25만 원, 20cm 이상 10미)' 등 4종을 선보이며, 길이 28cm 이상의 굴비로만 구성된 '현대 명품 참굴비 세트'도 150세트 한정으로 내놨다. 35cm 참굴비 10마리로 구성된 '현대 명품 참굴비 수(秀)세트(350만 원)', 29cm 이상 참굴비 2마리로 구성된 '현대 명품 참굴비 난(蘭) 세트(20만 원)' 등이다.

고급 과일도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샤인머스켓 세트도 5개 품목을 선보인다.

롯데홈쇼핑 최유라쇼 '설 마음 한 상'

최유라가 추천하는 홍삼 골라보세요

롯데홈쇼핑은 설을 맞아 대표 프로그램인 '최유라쇼'를 통해 인기 먹거리와 선물세트 등을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이는 '설 마음 한 상' 특집전을 진행한다.

18일 오전 8시 20분에는 6년근 국내산 도라지와 홍삼을 배합한 박주홍 원장의 '진도라지 홍삼세트'를 판매한다. 국내산 배 농축액과 국내산 토종꿀을 함유해 부모님 건강식품으로 제격이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20분에는 '횡성축협한우 등심 세트'를 단독으로 선보인다. 횡성축협한우세트는 롯데홈쇼핑에서 지난해 설과 추석에 총 1만5000세트가 판매된 명절 인기 상품이다. 올해는 '갈비찜'보다 '구이'나 '스테이크'를 선호하는 육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기본 구성(등심, 불고기, 사골곰탕 엑기스)에 등심(400g)과 불고기(400g)를 한 팩씩 추가한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다.

19일 오전 10시 '최유라쇼'에서는 당도 13브릭스(brix) 이상으로만 선별된 프리미엄 감귤 '제주 불로초 감귤(1.5kg)'과 부산 기장 마을의 일명 '쫄쫄이'



미역인 '소금향기 기장미역 세트', 스페인 올리브오일 명가인 '뮤엘 올리바'의 '벤타 델 바론 올리브유 세트'를 연이어 소개한다.

가정간편식(HMR)도 확대한다. 19일 오후 3시에 지난해 설에 간편식 판매 1위를 달성한 식품 브랜드 '김나운 더 키친'의 'LA갈비'를, 18일 오후 3시 10분에는 '연양식 불고기 와규한판'을 판매한다.

SPC삼립 그리스슈바인·빛은 선물세트

독일 명품 햄·달콤한 한과 등 선택 폭넓혀

SPC삼립이 설을 맞아 ‘그리스슈바인 선물세트’ 7종과 ‘빛은 설 선물세트’ 16종을 출시했다.

‘그리스슈바인 선물세트’는 그리스슈바인 캔햄으로 구성된 햄 선물세트부터 포도씨유, 카놀라유, 올리브당, 천일염, 통후추, 참치 등과 함께 구성된 복합 선물세트까지 총 7종이며 쿠팡 등 온라인몰과 SPC GFS의 자사몰 ‘하이카페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그리스슈바인 캔햄은 독일 육가공 전문기업인 슈퍼(Schafer)사와 기술 제휴해 적당한 기름기를 머금은 돼지 앞다릿살과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뒷다릿살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해 쫄깃한 식감과 육즙이 살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빛은 설 선물세트’는 ‘장수기원 감사세트’, ‘전통한과세트’ 등 1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다.

‘장수기원 감사세트’는 빛은의 인기 제품인 찰떡, 만주, 복(福)무늬를 새긴 절편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선물세트다. ‘전통한과세트’는 식품명인 33호 박순애 명인과 기술제휴해 만든 한과로 구성돼 있다. 구성된 한과는 담양 순수 조정을 사용해 너무 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단호박, 백년초 등 천연색소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색감을 살렸다.

선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설날 선물세트 구매 시 5000원을 추가하면 고급 보자기 포장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우리쌀로 만들어 더욱 쫄깃한 ‘순 우리쌀 떡국떡’과 간편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는 찰찰산자, 제수편 등도 판매한다.

빛은은 25일까지 ‘새해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빛은 온·오프라인몰에서 ‘감사 선물세트(3·4·8호 한정)’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매일유업 상하목장 슬로우키친 스프 선물세트

자연치즈 넣어 더 부드럽고 맛있는 스프

매일유업은 자연치즈를 더해 더 부드럽고 맛있는 ‘상하목장 슬로우키친 스프’를 론칭하고 양송이크림 스프와 단호박크림스프, 클램파우더스프 3종을 선보였다.

‘상하목장 슬로우키친’은 슬로푸드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간편식(HMR) 브랜드다.

슬로우키친 스프 3종은 원재료 본연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건조되지 않은 원물 재료에 풍부한 유크림과 리코타 자연치즈를 더해 재료의 풍미를 한층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도록 선보인 액상형 크림스프다. 특히 재료의 투입 순서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질 수 있는 스프 요리의 특성상 상하목장 슬로우키친 스프는 양파와 유크림, 우유 등 핵심 재료의 투입 순서와 조리 시간을 지켜 마치 가정에서 직접 요리한 듯한 스프 맛을 구현했다.

또한 농도를 부드럽게 맞춰 숟가락이 없어도 컵에 부어서 간편하게 마시며 즐길 수도 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하며 전자레인지에 40초만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



슬로우키친 관계자는 “상하목장 슬로우키친 스프는 원재료 선정부터 조리 과정까지 홈메이드 가정식처럼 시간과 정성을 담아 고객들이 맛과 편의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간편식 제품이다”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은 물론, 출출한 오후 간식이나 야식으로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제품 용량은 1개입당 150g이며, 소비자 권장가격은 2500원이다. 제품 구입은 전국 주요 할인마트와 백화점, 온라인에서는 주요 푸드 마켓몰 및 쇼핑 사이트에서 주문 가능하다.

동원F&B 동원참치

친환경에 실속 더한 ‘국가대표 선물세트’

동원F&B는 설을 맞아 플라스틱을 줄이고 종이재질 가방을 사용하는 등 환경보호를 고려한 ‘필(必)환경’ 선물세트 200여 종을 선보였다.

1등 참치캔 동원참치, 1등 캔햄 리챔, 1등 조미김 양반김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선물세트’인 동원 선물세트가 명절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친환경 요소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동원F&B는 먼저 선물세트 구성품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간격을 최대한 줄여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무게를 평균 20% 줄였다.

이를 통해 연간 40톤의 플라스틱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500ml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250만 개에 달하는 양이다.

또한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기존 식용유의 초록색 플라스틱병을 투명 플라스틱병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번 동원 설 선물세트는 친환경 요소와 더불어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도 더했다. 신진 작가와 컬래버한 패키지 디자인은 다채롭고



신뜻한 색감을 활용해 일상 속 행복의 밝고 따뜻한 모습을 삽화로 담아, 주고받는 이에게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선물이 되도록 했다.

대표 품목으로는 실속 복합세트인 ‘동원투나리챔 100호’(동원참치 살코기 135g 12캔, 리챔 오리진 200g 4캔)와 참치단독세트 ‘진호’(동원참치 살코기 150g 14캔, 고추참치 150g 4캔, 아재참치 150g 4캔, 김치찌개용참치 150g 4캔), 리챔단독세트 ‘리챔 3호’(리챔 오리진 200g 6캔, 리챔 오리진 340g 6캔) 등이 있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

부담 적고 큰 만족... 매년 조기 완판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프리미엄 증류소주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를 한정 판매한다.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가성비,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트렌드 등에 따라 프리미엄 소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출시 때마다 완판을 기록하는 등 명절 대표 선물로 자리매김했다. 선물세트는 일품진로 1924(375ml) 2병과 전용잔(스트레이트 잔 2개, 언더락스 잔 2개) 4개로 구성돼 있다. 프리미엄 소주의 격에 맞게 실크 원단과 고급스러운 질감의 박스로 포장해 선물의 가치를 높였다. 또, 일품진로 1924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 궁합과 음용법을 담은 리플렛을 함께 제공한다. 1월 2주차부터 전국 홈플러스 주요 매장에서 한정 판매되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팀 상무는 “일품진로 1924 선물세트는 가심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층은 물론 프리미엄 소주를 즐기는 중장년층까지 연령대 상관없이 모두에게 만족도 높은 대표 명절 선물”이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좋은 날, 고마



운 마음도 전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품진로1924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가장 대중적인 기호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2014년 창립 90년 기념주로 출시된 ‘진로1924’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랑과 재출시 요구에 따라 약 4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출시됐다. 특히 ‘일품진로 1924’는 세계 유명 주류품평회인 ‘2019 몽드셀렉션’에 참석해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품질력과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한 바 있다.

롯데칠성 백화수복

100% 국산 쌀로 빚어 깔끔한 맛

대한민국 대표 차례주 ‘백화수복’이 올 설에도 소비자를 찾아간다.

백화수복은 ‘오래 살면서 길이 복을 누리라’는 의미를 담은 제품으로, 받는 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이 네이밍에도 담겨 있다. 백화수복은 1945년 출시된 이후 오늘날까지 76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며, 단일 브랜드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청주 생산량을 자랑하는 군산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백화수복은 100% 국산 쌀만을 고집한다. 쌀의 외피는 30%가량 도정해 최적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저온 발효 공법과 숙성 방법을 통해 청주 특유의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3도이다.

올 설 선물세트는 우리 민족의 정성된 마음을 담아 내기 위해 라벨은 동양적인 붓글씨체를 사용하고 라벨과 병목 캡실(병뚜껑을 감싸고 있는 비닐 포장재)도 금색을 적용해 고급스러움과 우리나라 대표 차례주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켰다.



특유의 깊은 향과 맛으로 차게 마셔도 좋고 따뜻한 데워 마셔도 좋아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제례용 또는 명절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차례 또는 선물용 ‘백화수복’은 제품 용량이 700ml, 1l, 1.8l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가족 구성원수와 소비자 편의 및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가격은 일반 소매점 기준으로 700ml 4900원, 1l 7100원, 1.8l 1만1000원이다.

KGC인삼공사 홍삼정 마스터클래스

땅의 기운 품은 ‘지삼’ 함유로 품격 높여

정관장 홍삼은 엘리자베스 여왕, 교황 요한바오로 2세, 장쩌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국빈 선물로 애용되면서 대한민국 건강문화와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VIP선물로 사용된 고급 홍삼 ‘홍삼정 마스터클래스’가 이목을 끌고 있다. 홍삼정 마스터클래스는 희소가치가 높은 지삼을 함유한 100% 홍삼농축액이다. ‘땅의 기운을 품은 홍삼’이란 뜻을 가진 지삼은 조직이 치밀하고 내공과 내백이 거의 없는 우수한 홍삼을 의미한다. 부드러운 향미가 특징이다.

KGC인삼공사의 엄격한 관리와 장인정신으로 더욱 믿음이 가며, 디자인 패키지는 낙관 형식을 사용한 프리미엄으로 포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제격이다.

KGC인삼공사 홍삼은 재배환경이 우수한 청정 토지를 선정하고, 경작 계약을 통해 높은 품질의 6년근 인삼을 수확한다. 재배되는 기간 동안 꼼꼼한 품질관



리를 거쳐 우수한 품질의 홍삼으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관장 전 제품은 전국 정관장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및 정관장몰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KGC인삼공사는 설을 맞아 대표 인기 제품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20년 설, 20살의 마음을 선물하세요’ 행사를 29일까지 전국 정관장 매장에서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선물세트

설화수 베스트셀링 제품에 ‘덤’까지 담아

아모레퍼시픽이 새해를 맞아 대표 화장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는 자음 2종, 진설 2종, 자음생 2종으로 구성된 기획세트를 준비했다. 설화수의 기본 라인 제품으로 구성된 ‘자음 2종 세트’는 피부 보습을 위한 젤타입 스킨인 ‘자음수’와 유연한 피부로 가꿔주는 에멀션인 ‘자음유액’이 들어 있다. 또 ‘자음수’ ‘자음유액’, ‘자음생에센스’, ‘탄력크림’ 등 기초 건본 4종이 함께 포함돼 있다. 가격은 12만 원이다.

설화수 ‘진설 2종 세트(26만 5000원)’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 라인 세트로, 세트에 구성된 스킨&로션인 ‘진설수’, ‘진설유액’은 고귀한 적소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피부노화 케어 성분인 DAA를 함유해 피부에 힘을 키우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다.

설화수 ‘자음생 2종 세트’는 설화수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라인 기획 세트로 안티에이징 스킨&에멀션인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 본품으로 구성됐다.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은 인삼의 수분과 영양을 응축시킨 증삼수를 담아 탄탄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는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제품이다. 자음생 2종 세트는 17만 원에 판매한다.

꽃을 연구하는 브랜드 마몽드는 무궁화 보습 효능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라마이드 2종’ 기프트 세트(스킨소프너+에멀션), 세라마이드 성분의 진한 인텐스 크림이 흐트러진 피부 장벽에 깊은 보습감을 채워주는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 기프트 세트, 피부에 탄력을 채우고 주름을 완화해 어리고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는 ‘에이지 컨트롤 2종’ 기프트 세트를 내놔다.

애경산업 개인위생·건강 선물세트

<향기 깨끗 에디션>

거품 색 변화로 손 씻기 알맞은 시간 표시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설을 맞아 개인위생을 위한 선물세트부터 뉴트로 감성 및 차별화된 성분을 담은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향기 깨끗 에디션’ 선물세트는 손씻기 적정시간 30초 동안 거품 색이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변하는 랩신 V3 컬러제잉징 포밍 핸드워시를 담은 선물세트다.

여기에 싱그러운 플라워 향을 담은 샤워메이트 바디워시와 비누를 담아 보디세정을 위한 제품들로 구성돼 젊은 세대에 선물하기 적합하다.

‘케라시스 퍼퓸 에디션’은 원조 퍼퓸 샴푸 케라시스의 ‘러블리데이지 퍼퓸 샴푸’ 등 총 3가지 향의 샴푸와 퍼퓸 트리트먼트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향을 느낄 수 있다. 또 국내외에 잘 알려진 ‘엘레나 제임스’(YELLENA JAMES)의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제품에 담았다.

뉴트로 감성을 담은 선물세트도 눈에 띈다. ‘헤어&바디 에디션’ 선물세트는 세기의 연인이라 불리는



오드리 햅번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한 선물세트로, 오드리 햅번의 생전 명언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옮겨 우아한 디자인을 담았다. 오드리 햅번의 영화를 보고 자란 중장년층들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선물로, 젊은 층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선물하기 좋다.

꼼꼼하게 성분을 따지는 분들을 위한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담은’ 선물세트는 ‘농협’과 함께 만든 제품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로, 특히 감정콩, 신안 천일염, 제주 알로에 등 농협조합원들이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자연유래추출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국야쿠르트 발효홍삼 발취

프리미엄 발효홍삼 4종 이달 20% 할인

건강기업 한국야쿠르트가 설 명절을 맞아 홍삼 제품 특별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한국야쿠르트는 이달 말까지 프리미엄 발효홍삼 ‘발취’ 4종 제품에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홍삼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12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0.9% 증가한 수치다. 그중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삼 시장 규모는 2005년 5000억 원에서 2017년 1조6000억 원으로 커졌다. 업계에서는 홍삼 시장만 올해 2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한국야쿠르트 홍삼제품으로는 지난해 출시한 발취 ‘발효홍삼K’, ‘발효홍삼 전진녹보’, ‘발효홍삼 진삼한’, ‘발효홍삼스틱’이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앞서 발효홍삼 브랜드를 ‘발취’로 통합 리뉴얼한



바 있다. 대표적인 발효홍삼군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발취 발효홍삼 K’는 에이치와이(HY) 발효홍삼 농축액에 대포농축액 등 12종의 한방원료를 최상의 조건으로 배합해 빠른 흡수와 유지력을 자랑한다. 50ml의 액상 제품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발효홍삼 전진녹보’는 발효홍삼과 녹용을 넣은 프리미엄 한 제품이다. 기존 ‘발효홍삼 황실기력단’ 대비 녹용 함량을 3배 늘리고 환은 홍삼으로 한 번 더 코팅해 효과를 강화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생활용품 선물세트

<후 천율단 태후세트>

조선왕실 비단 포장 재현한 궁중화장품

LG생활건강이 럭셔리 화장품 선물세트부터 실용적인 생활용품 선물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궁중화장품 브랜드 ‘후’는 설을 맞아 왕후의 상징인 삼작 노리개의 매듭으로 의미를 더한 ‘후 천율단 태후세트’를 선보였다. ‘태후세트’는 후 천율단 라인의 제품으로 구성된 최고급 럭셔리 에단 스파셜 세트로, 소중한 물건을 아끼고 빛냈던 조선 왕실의 포장 예술 헤리티지를 재현해냈다. 천율단 라인의 밸런서와 로션부터 에센스, 크림까지 모든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풍성한 구성이 특징이다. ‘후 천율단 태후세트’는 화율밸런서 150ml, 화율로션 110ml, 화율에센스 40ml, 화율크림 60ml로 구성됐고 가격은 110만 원대다.

‘후’에 이은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숨37°’은 안티에이징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로시크숨마 하이엔드 세트’를 선보였다. ‘로시크숨마 하이엔드 세트’는 동서양의 발효 비방이 어우러지고 피부 보연 활력을 더해주는 스킨소프너, 에멀션, 세럼, 크림 및 아이



크림을 담았다. 로시크숨마 골든 립스틱과 골든 쿠션, 골든 베이스와 쉬어 커버 파운데이션을 더해 기초부터 색조까지 다양한 구성을 자랑한다. 이 세트는 로시크숨마 엘릭서 스킨소프너 150ml, 에멀션 130ml, 세럼 40ml, 크림 25ml (촉소형), 아이크림 25ml, 골든 립스틱 디페드, 골든 쿠션 15g으로 구성됐고, 가격은 59만 원대다.

생활용품 세트도 준비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다채로운 선물을 원한다면 ‘쓰임가득 16호’(1만6900원) 선물세트를 추천한다. 자연에 가까운 오가니스트 로즈마리 샴푸·컨디셔너를 비롯해 페리오 및 리치 치약, 보디케어 브랜드 온더바디 보디워시·비누를 담았다.

금강제화 금강상품권

남녀노소 좋아하는 다양한 브랜드 구성

금강제화가 새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제안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실용적인 선물을 고르려면 역시 상품권이 빠질 수 없다. 연령대나 취향에 따른 걱정 없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금강상품권은 명절마다 인기 선물로 꼽힌다. 금강상품권은 구두뿐 아니라 핸드백, 지갑, 벨트, 액세서리 및 골프웨어, 아웃도어웨어, 신사복 등 의류제품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금강상품권은 전국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물하기 좋은 다양한 신발도 내놓을 수 있다. 한여름만 빼고 사계절 신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앵글부츠가 인기다. 앵글부츠는 신고 벗기에 편할 뿐만 아니라 코디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쓰임새가 많다. 금강제화의 르느와르 화



이트 부츠는 심플한 실루엣에 크림 베이지 톤의 조화로 우아한 매력을 발산하면서도 고탄성 쿠션인솔과 플렉시블한 아웃솔로 편안한 착화감을 준다. 같은 디자인의 시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블랙 컬러도 준비했다.

캐주얼 대표 브랜드 랜드로바도 미니멀한 스타일의 안정적인 착화감을 자랑하는 랜드로바 앵글 부츠가 강세다.

60번째 한국 남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구두가 있다. 제품 이름(제왕)처럼 중후한 품격으로 한국 남성들의 발을 책임져 온 신사화가 바로 금강제화의 ‘리갈’(REGAL)이다. 리갈은 1954년 금강제화의 창립과 함께 첫선을 보인 후 매년 평균 30만 켤레의 판매량을 기록해왔다. 특히 90% 이상의 재구매율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브랜드 충성도와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

한성기업 몬스터크랩BODY 2종

비빔 요리에 좋은 대게장·초고추장 맛살

한성기업은 신제품 ‘몬스터크랩BODY 2종’을 출시했다. 원조 고급맛살 ‘크래미’를 만든 노하우로 맛의 황금비와 한입 가득 축축한 식감을 자랑하는 몬스터 크랩과 대게 다리 살의 맛과 풍미를 재현한 몬스터 크랩 ‘레그(다리)’에 이어 크랩의 ‘몸통’을 출시한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대게딱지장과 초고추장 2종으로 고급맛살과 대게딱지장, 초고추장 소스를 버무려 놓은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식사를 선호하는 20대 남성과 색다른 신제품을 즐기는 남녀 모두에게 안성맞춤이다.

신제품 2종 모두 그 자체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다만 대게 딱지장 제품의 경우 비빔밥의 토핑이나 유부초밥 위에 올렸을 때 특히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초고추장 제품은 비빔국수 또는 다양한 비빔 요리 등에 곁들이면 좋다. 몬스터크랩BODY 대게딱지장은 고급맛살을 진한



대게장에 비벼내 소비자로 하여금 평소 즐기던 딱지장 소스에 풍부한 식감을 더해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고추장 제품은 매콤새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상큼하면서도 입맛을 돋우는 제품을 찾는 소비자의 입맛에 안성맞춤이다.

한성기업은 “원조 고급맛살 크래미를 탄생시킨 한성기업이 기존 고급 맛살 제품의 틀에서 벗어나 요리의 고명이나 간편한 간식, 안주로도 으뜸인 신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현재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손쉽게 만나 볼 수 있다.

종근당 고향활성비타민 벤폴벨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 날리세요

매년 명절이 끝나면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명절증후군이란 명절 기간 동안 겪는 각종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일종의 후유증이다.

명절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과 증상으로는 교통체증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눈의 피로와 근육통,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어깨결림·허리통증 등 신경통이 있다. 명절증후군을 해소하려면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자주 풀어주며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종근당의 '벤폴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폴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코엔자임Q10,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해 하루 한 알로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 벤폴벨의 주성분인 벤폴티아민은 육체 피로와 눈의 피로, 근육통 개선에 효과가 우수한 활성형 비타민B1성분이다. 일반 비타민 B1 제제보다 생체가



용률이 높고 복용 시 약효가 빠르게 발현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벤폴티아민 외에도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신경통 해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6, B9, B12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B5, B6가 들어 있다.

벤폴벨은 웅담 성분인 UDCA를 30mg 함유하고 있어 명절기간 가족끼리 가진 술자리와 피로누적으로 저하된 간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탁월하다. UDCA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분비를 촉진해 독성 담즙산을 제거하는 등 정상적인 간기능을 돕는다.

한미약품 종합 미네랄비타민 나인나인

국내 종합영양제 최다 28종 성분 함유

한미약품의 종합 미네랄비타민 영양제인 '나인나인'이 영양제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나인나인은 국내 출시된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은 성분(28종)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으로, 육체피로 해소, 병중·병후 비타민 공급, 눈·뼈 건강 등에 도움을 준다.

특히 나인나인은 한국인 결핍 영양소 1위인 비타민D 성분 함유량이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는 750IU가 함유돼 있다. 비타민D는 혈중 칼슘과 인의 농도를 조절하며,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D 부족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면역력은 떨어뜨리고 자가면역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하루 30분 이상 햇빛을 쬔면 몸 속 비타민D가 합성되지만, 한국인은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이 많고 자외선차단제 사용 비율이 높아 비타민D 부족현상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혈중의 평균 비타민D 수치는 남성의 경우 21.16ng/ml, 여성은



18.16ng/ml로 조사됐다. 적당한 혈중 비타민D 수치가 20~30ng/ml이기 때문에 영양제 등을 통한 보충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 중인 수입 종합영양제 등의 경우, 나인나인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준의 비타민D가 들어 있어 소비자들은 별도의 비타민D 제품을 구매해서 섭취해야 했다.

나인나인은 하루 한 알로 28종의 영양소와 함께 비타민D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영양제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동제약 아로나민 시리즈

일반 비타민보다 흡수 빠른 활성형 제품

일동제약의 활성비타민 피로해소제 '아로나민'은 오랜 기간 꾸준히 사랑 받아온 파워브랜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6~2018년 국내 비타민제는 물론, 일반의약품 전체를 통틀어 3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아로나민 시리즈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과 대사, 신경의 작용 및 유지 등에 관여하는 비타민B군을 중심으로, 각각의 콘셉트에 따라 비타민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를 적절히 배분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유효성분 중 활성형 비타민B1인 푸르설티아민은 일반형 비타민에 비해 체내 흡수와 조직 이행이 잘 되고 지속 시간이 더 길다.

피로해소제 콘셉트의 '아로나민 골드'는 푸르설티아민을 비롯한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비타민E 등이 적절히 들어 있어 육체피로, 체력저하,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요통, 어깨결림) 등에 효과가 있다. '아로나민 이맥스플러스'는 활성비타민B1을 비롯한 비타민B군 7종과 비타민E를 고용량 처방한



제품이다. '아로나민 씨플러스'는 활성비타민B1을 비롯한 비타민B군과 함께 비타민C, 비타민E, 셀레늄, 아연 등의 항산화 성분을 더하여 비타민 보충은 물론 피부 건강도 함께 고려한 제품이다.

'아로나민 실버프리미엄'은 활성비타민B1 등 비타민B군과 비타민A·C·D·E 등의 각종 비타민은 물론, 중장년층에 부족할 수 있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등 총 20여 종의 유효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

동아제약 더마 화장품 파티온

2주 만에 손상피부 수분 96% 회복

최근 명절 선물로 실용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화장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남녀 브랜드 라인을 모두 갖춘 동아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주목받고 있다.

파티온 제품은 혼적 케어 라인 '노스캅 리페어', 보습 케어 라인 '딥 배리어', 남성 스킨케어 라인 '옴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파티온은 '운명'을 뜻하는 라틴어 FATI와 '커다'란 의미의 영어 ON의 합성어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깨워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신감으로 빛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담았다.

노스캅 리페어 라인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젤 등 클렌징 카테고리 2종, 필링 토너, 인텐시브 앰플, 겔 크림, 선 크림 등 스킨케어 카테고리 4종 등 총 6종으로 구성돼 있다. 노스캅 리페어 라인 중 주력 제품은 '노스캅 리페어 겔 크림'이다. 이 제품은 미백, 주름 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깨끗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며, 눈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해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피부색) 개선 테스트를 실시, 제품 2



주 사용으로 손상 피부의 경표피 수분손실량이 96%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딥 배리어는 4종으로 이뤄졌으며, 향료 및 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대표 제품인 딥 배리어 크림 토너는 2중 보습 개선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피부 속과 겉을 이중으로 케어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보습감을 불어 넣는다.

옴므는 지친 남성 피부에 생기 및 활력을 부여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졌으며, 동아제약 대표 제품 '박카스'의 타우린 성분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JW신약 로게인폼

미 FDA 승인받은 세계 1위 탈모치료제

대머리는 유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면 대머리 자체보다는 남성호르몬에 민감한 체질이 유전된다고 할 수 있다. 대머리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생 중 유전적으로 정해진 시점에 적정량의 안드로겐이 모낭에 작용하면 탈모가 진행되는 것이다.

초기 탈모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 두피 클리닉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탈모가 심할 경우 약물이나 치료제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

최근에는 20대 후반부터 탈모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아 대머리의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생활의 변화에 따른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JW신약의 로게인폼은 미녹시딜(5%)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르는 폼(거품) 타입 탈모치료제다. 제형 특성상 흘러내리지 않아 필요한 부분에만 적정량을



도포할 수 있고 두피 흡수와 건조가 빨라 사용 편의성과 치료 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주성분인 미녹시딜은 두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모발 성장 주기도 연장해 준다.

이 제품은 탈모치료제로는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으며, 세계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출시된 최초의 거품 타입 탈모 치료 외용제다.

또한 프로필렌 글리콜(PG)이 들어 있지 않아 두피 자극이 적고, 여성 탈모 환자들도 1일 1회 도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JW신약 관계자는 "액상과 겔 형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로게인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국산 경구용 탈모치료제 시장을 선도하는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를 통해 클리닉 영역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다한 녹용홍삼진액

최고급 녹용·홍삼 통째 넣어 영양 가득

최고급 녹용을 통째 담아낸 참다한홍삼의 '녹용홍삼진액'이 설 선물로 주목받고 있다.

녹용은 예로부터 인체 힘을 북돋아주는 보정강장제(補精壯劑)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다. 동의보감은 '소모된 몸의 기운을 북돋아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조선의 최장수 왕인 영조 또한 평생 가까이 두고 즐겨 먹은 것으로 유명하다.

참다한은 녹용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러시아산을 원료로 사용했다. 특히 녹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통으로 담아내 녹용이 가진 모든 영양소를 남김없이 섭취하도록 설계했다. 사슴뿔은 위에서부터 분골·상대·중대·하대로 나뉘는데, 각 부위별로 함유 성분이 달라 일부만 섭취할 경우 제대로된 효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참다한은 이러한 녹용의 특성을 반영해 분골부터 하대까지 통째 사용함은 물론, 사슴뿔 최상단에 위치한 고가의 녹용 팁(기름분골)까지 그대로 담아냈다.

특히 발효공법을 사용해 흡수율과 유효성분 함량



도 높였다. 녹용은 발효를 거치면 분자구조가 잘게 쪼개지고 효소 생성이 증가해 장내 흡수가 더 잘 된다. 또, 세포 속에 갇혀 있던 성분들이 모두 추출돼 약리 성분 함량이 90% 가까이 증가한다.

녹용홍삼진액은 홍삼을 통째 갈아낸 초미세분말이 들어 있어 일반 홍삼액 대비 2배 이상 많은 영양분을 자랑한다.

녹용홍삼진액은 먹기 편한 파우치 형태로 50ml 30포 구성이며 가격은 16만5000원이다.

KT ‘구현모 시대’ 맞춰 군살 빼고 젊은 조직 탈바꿈

조직개편·임원인사

KT가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통해 ‘구현모 시대’를 본격화 했다.

KT는 16일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KT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통해 디지털 혁신(DX)을 위한 미래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업과 상품·서비스 개발로 나뉘져 있던 조직을 통합했다. 기존 커스터머&미디어부문과 마케팅부문을 합쳐 ‘커스터머(Customer) 부문’을 신설하고, 소비자고객(B2C)을 전담한다. 신설된 커스터머부문은 5G, 기기인터넷을 중심으로 유무선 사업과 IPTV, VR 등 미디어플랫폼 사업에 대한 상품·서비스 개발과 영업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고객 생활의 변화를 이끌고, 보다 큰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기업고객(B2B)과 글로벌고객(B2G)을 담당하던 부서도 통합했다. 기존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기업부문’으로 재편해 국내외 기업고객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부문은 기업고객들의 ‘디지털 혁신’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영업과 네트워크로 나

전체 임원 수 98명…12% 줄어

신규 임원 27%가 1970년대생

B2C 전담 ‘커스터머’ 부문 신설

‘AI·DX융합사업’ 부문 만들어

AI·빅데이터 디지털 혁신 선도

뉘져 있던 각 지역본부를 통합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전국 11개 지역고객본부와 6개 네트워크운용본부를 6개 광역본부로 합쳐 고객 서비스와 기술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AI·DX융합사업부문 신설…업무환경 근본적 변화=KT는 AI·DX사업부문을 신설해 5G 통신 서비스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기술을 통합해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AI·DX융합사업부문장은 최고디지털 혁신책임자(CDXO)로서 KT의 디지털혁신을 책임지는 전홍범 부사장을 보임했다. 전 CDXO는 디지털혁신 사업모델을 만드는 선임 부서장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부서와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도 보



박윤영 사장



이철규 부사장



신현옥 부사장

강했다.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하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이끌어갈 수장으로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할 예정이다. CCO는 경영 전반과 사업 추진에서 적법성과 제반 규정준수를 선도해 KT 준법경영의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KT는 미래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및 클라우드 분야의 핵심인재 육성, 고객별 자기혁신,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선정했다. 3대 핵심과제는 CEO가 직접 주도하는데 이를 지원할 CEO 직속조직으로 ‘미래가치TF’를 신설하고, TF장으로 김형욱 전무를 선임했다. 이번에 신설된 미래가치TF는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KT의 변화를 이끈다.

◇업무 중심 전문가 ‘중용’…변화와 혁신 위해 젊은 인력 ‘발탁’=KT는 이번 임원 인사에서 업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가를 중용하고, 조직에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 젊은 인력을 대거 발탁했다. 이번에 사장 1명, 부사장 2명, 전무 5명이 승진했으며, 상무 21명이 새로 임원이 됐다. 이번 인사로 KT 임원의 평균 연령은 52.1세로, 전년 임원 평균 연령(52.9세)에 비해 한 살 가량 낮아졌다.

또한 KT 임원의 수는 전년 대비 약 12% 줄어든 98명이 됐다. 2016년 이후 4년 만에 임원 수가 두 자리 숫자로 축소됐다. 또한 전무 이상 고위직을 대폭 줄여(33명→25명) 젊고 민첩한 실무형 조직으로 변화를 예고했다.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박윤영 기

업사업부문장은 창의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KT가 기업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박윤영 사장은 기업사업부문과 글로벌사업부문을 통합한 기업부문장을 맡는다. KT는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 이외에 박윤영 사장이 승진하면서 복수의 사장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로써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보다 민첩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규 임원(상무)이 된 21명 중 27%가 1970년대생(50세 이하)이다. 이로써 KT 임원은 5명 중 1명 꼴(22.5%)로 50세 이하가 돼 조직의 활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즈(Biz) 사업을 이끌고 있는 1972년생 김봉균 상무는 이번에 전무로 승진해 1970년대생이 고위 임원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을 쏘았다.

KT 전략기획실장 박종욱 부사장은 “KT는 고객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고객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변화시켰다”며 “또한 이번에 중용된 인재들은 차기 CEO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경영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KT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2029년까지 1조 투입 ‘AI 일등국가’ 만든다

과기부 2020년도 업무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연구비 지원을 포함, 총 24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산업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하는 등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과기부는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술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라는 게 과기부 측 설명이다.

세부 추진안으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AI육성전략의 종착지를 ‘AI 일등국가’로 잡고 작년 12월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에도 지원을 집중한다. 우선 3000억 원 규모

광주에 ‘AI집적단지’ 조성

5G 관련산업 육성에 30조

을 연구개발 예산 24조 돌파

의 AI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또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도 작년 200곳에서 올해 800곳까지 늘린다. 2024년까지 총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첫삽을 뜰 예정이다.

5G통신 인프라 확대와 콘텐츠 개발,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과기부는 작년에 이어 2022년까지 5G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기지국 등 록면허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낸다. 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을 1000여 명 양성하고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75억 원을 투입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 40곳에 800억 원을 지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산업 진흥도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것.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확장할 수 있게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575억 원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등에 투자한다. 양자 정보통신기술 개발에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140억원을, 수소기술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에는 올해 3359억원이 투자된다. 우주기술 개발도 주요 추진과제다. 다음 달에는 ‘천리안 2B호’가 발사돼, 정지궤도 위성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발사가 계획돼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수학교육 플랫폼 ‘노리’ 흑자전환

대교에 인수 1년 만에 성과

대교는 본격적인 에듀테크 서비스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8월 인수한 글로벌 인공지능 수학교육 플랫폼 회사 ‘노리(KnowRe)’를 인수 1년 만에 흑자 전환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대교는 노리 인수 후 지난 10월 AI학습 서비스 ‘써밋 수학’을 ‘써밋 스피드수학’과 ‘써밋 스코어수학’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차별화된 AI 학습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기초 연산력 완성이 가능한 ‘써밋 스피드수학’과 수학 고득점을 위한 ‘써밋 스코어수학’은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별 맞춤 학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써밋 스코어수학’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회원 13만을 돌파했고 ‘써밋 스피드수학’은 출시 3주만에 3만을 돌파, 누적 회원 4만을 보유하며 대교의 AI학습서비스 회원수는 총 17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5% 이상 증가했고 매출은 4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3%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19년 노리의 잠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5억 원과 2억 원으로 전년

동기(매출액 36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 대비 흑자를 기록하게 됐고, 2012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노리는 처음 흑자로 돌아서게 됐다.

이는 대교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교육 노하우와 노리의 수학 스마트러닝 솔루션이 시너지를 발휘해 학습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결과로 보여진다.

대교 관계자는 “노리 인수 후 대교는 AI 수학 분석 관리 기술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교와 노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며 “향후 대교는 수학을 비롯한 더 많은 과목에서 AI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고 AI제품관련 매출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대교와 노리가 ‘스마트 수학교육 콘텐츠 공급’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함께 선보인 ‘써밋 수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수학학습 서비스다. 이재훈 기자 yes@

LG U+, 초등생 스마트폰 ‘카카오 리틀프렌즈폰3’

자녀 휴대폰 관리·위치조회 탑재

LG유플러스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생 맞춤형 스마트폰 ‘카카오 리틀프렌즈폰3’를 17일부터 단독 출시한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카카오리틀프렌즈폰 2에 이어 1년여 만에 후속 모델로 선보이는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는 자녀 스스로 스마트폰을 관리하고 교육 콘텐츠를 통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전작 시리즈의 자녀 휴대폰 관리, 위치조회 등 핵심기능과 3D 입

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자녀 휴대폰 관리는 실시간 앱/데이터 제한설정, 통화/문자 대상 지정 기능 외에도 ‘스스로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스스로모드는 자녀가 스스로 스마트폰앱 사용계획을 세워 부모와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사용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기능이다. 안심지역 설정, 실시간 사진 전송 등 기존의 위치조회 기능도 한층 강화되어 이번모델에서는 ‘로드뷰’를 통해 부모들이 자녀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쉽게



LG유플러스 모델들이 ‘카카오리틀프렌즈폰3’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색상은 블랙 1종이며, 출고가는 23만 9800원으로 전작 대비 약 6만 원 가량 저렴해졌다. 이재훈 기자 yes@

네이버 ‘AI 맞춤형 실검’ 연예·스포츠 등 확대 적용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가 적용되는 급상승검색어 카테고리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네이버는 급상승검색어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어 추천 시스템 ‘리요’를 처음 도입했다. 리요는 검색량이 급상승한 검색어와 이용자가 설정한 주제 카테고리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뒤, 개인별 설정 기준에 맞춰 급상승검색어 차트 노출 여부를 결정한다.

네이버는 리요를 적용한 카테고리를 시

사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영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선호하는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급상승검색어 차트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각 주제에 포함되는 검색어의 차트 가중치를 설정하는 필터를 PC 메인 급상승검색어 서비스 영역에서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급상승검색어가 양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리요의 고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지배구조 이어 ‘환경·사회책임’ 공시 의무화 움직임

거래소, 美·홍콩 사례 기반 공시 가이드라인 도입 추진 상장사 고용·안전보건 공개 등 보고서 준비 부담도 커져

‘착한 투자’가 글로벌 중요 투자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환경과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 공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한국도 ESG 공시 의무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주요 5개국의 ESG

관련 투자는 30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착한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각국 거래소들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24개 국가가 ESG 공시규정을 둔 상

태다.

한국거래소도 환경(E)과 사회책임(S) 공시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한해 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를 시작했다. 올해 미국이나 홍콩 등의 사례를 기반으로 E·S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ESG 기준으로 상장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은 주목할 대목이다.

임현경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ESG 정보 공시는 세계적 추세로, 정부·투자자·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글로벌 수요로 확대되고 있다”며 “다만 지배구조와는 달리 범위가 매우 넓고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 공시가 도입되면 상장사들은 △고용(이직률, 직원 비율, 승진, 근무기간, 성과평가) △안전보건(산재) △직무 교육과 훈련 △부패방지(뇌물, 금품강요, 자금세탁) △지역사회 투자(스포츠 문화) △협력사와의 상생 △환경단체

에 대한 대응 △친환경제품 개발 상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관계자는 “일반 공시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 등은 정해진 것이 없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라며 “기업의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상장사 사외이사 ‘3월 대란’ 예고

‘임기 6년 제한’ 개정안 국회 통과 566개사 718명 3월 주총서 교체 대기업 24곳 111명 중 44명 해당 실적 부담에 신규 선임 과제 골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대상자는 718명(코스피 311명, 코스닥 407명)에 달한다. 12월 결산 상장사 2003개사 중 4분의 1 이상이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하는 셈이다.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회사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24곳의 사외이사 111명 중 39.64%에 해당하는 44명이 교체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I, 삼성SDS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은 사외이사 4명 전원을 이번 주주총회에서 교체해야 한다. 카카오, 삼성전기는 4명 중 감사위원장

상장사 전체 대비 올해 교체 대상 사외이사 비율			
	교체 대상 상장사 수	총 상장사 대비 비율	교체 대상 사외이사 수
코스피	233개	32.86%	311명
코스닥	333개	27.07%	407명
합계	566개	29.19%	718명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비금융 상장사 기준

을 포함한 사외이사 3명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KCC의 경우 5명 중 3명을 바꿔야 하며, 교체 대상 중 2명은 감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셀트리온은 사외이사 6명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지 않는 기업 184곳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총 212명 바꿔야 한다. 헬릭스미스와 디피씨는 사외이사 3명 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고, 에이치엘비의 경우 기존 사외이사 3명 중 2명이 신규 선임 대상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같은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기업 또는 계열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총시즌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

에서 상당수 상장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흥역을 앓은 상장사들은 올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새로운 사외이사를 단시간에 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 중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87.3%인 494개사, 615명(85.7%)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인력 영입이 더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외이사 영입 시 보수도 고려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보수가 낮은 기업에서 기꺼이 사외이사 직책을 맡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다원 기자 leed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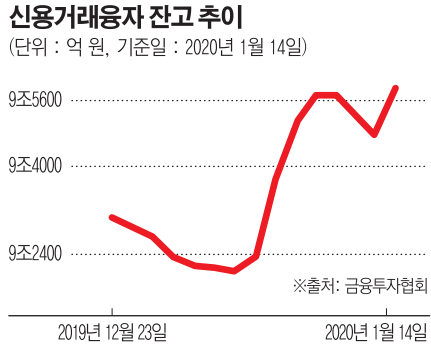
빛내서 테마주 투자하는 재미들

증시 상승세에 신용매수 늘어 14일 기준 시장 전체 14억株 거래 9일 코스피 5.1억株 ‘역대 최고’

연초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빛을 내 주식을 사들이는 신용거래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마주 중심으로 신용거래가 늘어나면서 주가 급등락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지난 14일 기준 각각 4조2289억 원, 5조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잔고는 9조5421억 원 규모로 지난해 7월 30일(9조6741억 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용자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걸 의미한다. 잔고가 많을수록,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빛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들이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신용거래 체결 주식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시장의 신용거래 체결주식은 14억1936주(유가증권 5억1307주, 코스닥 9억628주)에 달한다. 특히 유가증권의 경우, 지난 9일 5억1418주를 기록해 통계가 시작된 1998년 7월 1일 이후 역대 최고치 기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151.31로 마감했지만, 14일에는 2238.88을 기록해 나흘 만에 87포인트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들이 빛을 내 산 주식이 테마주에 몰린 점은 위험 요소로 꼽힌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씨니전자로 15.14%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SK우(11.44%), 필룩스(10.20%) 등이 뒤를 이었다. 씨니전자는 안철수 테마주로 꼽힌다. 정치인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사이 단기 차익 실현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빅텍(13.51%)이 최고 신용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방산 테마주로 여인 빅텍은 최근 미국·이란 간 갈등 고조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이어 오피베이스(12.84%), SDN(11.50%), 장원테크(11.40%) 역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용자는 단기 투자목적으로 활용되며, 주가 상승기에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테마주 쪽으로 신용거래용자가 늘어난다면, 시장 위험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희 기자 ljh@

‘자산 2兆’ 이상 175개사, 여성 등기임원 ‘제로’

215곳 작년 3분기 보고 분석 지역난방공사 3명 보유 ‘최다’ 삼성전자 등 5개사 2명에 그쳐

자산 2조 원이 넘는 상장사 열의 여덟곳은 여성 등기임원을 한 명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성(性)으로 구성하면 안된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6일 이투데이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215곳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 등기임원이 없는 곳은 175곳으로, 전체 상장사의 80.93%를 기록했다.

여성 등기임원을 보유한 기업들도 회사당 1~2명 정도에 불과해 전체 등기임원 1516명 중 47명(3.1%)에 그쳤다.

여성 임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지역난방공사로, 전체 상장사 중 유일하게 3

상장사 여성 등기임원 현황
(자산 2조 원 기준)

0명	1명	2명	3명	전체
175곳	34곳	5곳	1곳	215곳

※출처: 각 사, 2019년 3분기 분기보고서

명이다. 이들 임원은 회계사와 변호사 출신 등의 사외이사(비상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성 등기임원이 2명인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스오일, 아주캐피탈, OCI, 영원무역 등 5개 기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영원무역을 제외하곤 비상근직 또는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여성이 자체 내부승진을 통해 상근 등기임원에 오르기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지난 9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여성 등기임원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특정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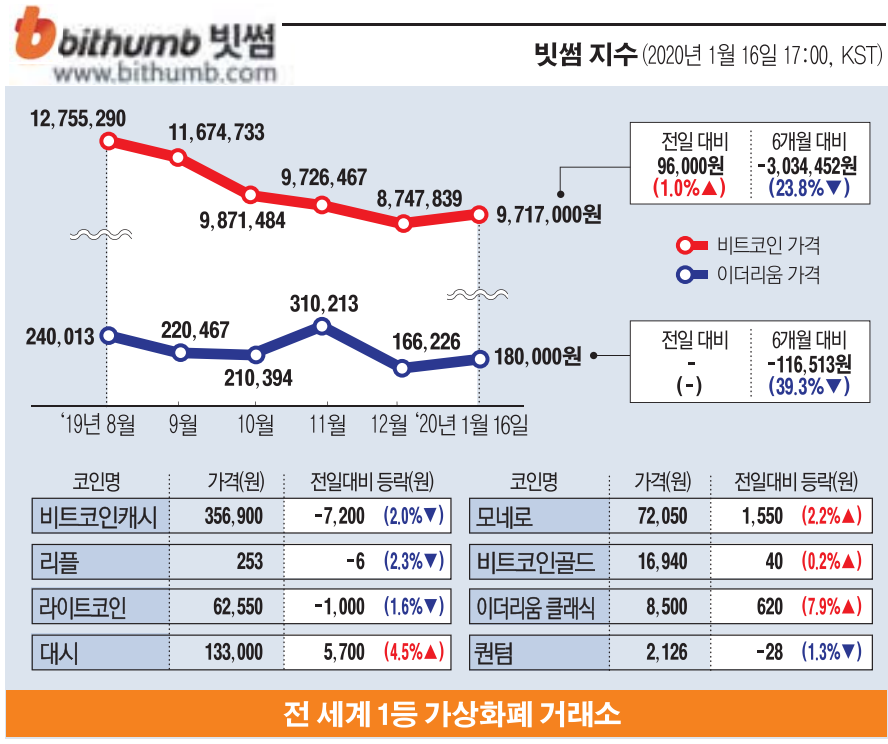
(性) 이사가 이사회 전부를 차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그나마 여성 임원 비중이 높은 곳도 △지역난방공사(27%) △아주캐피탈(25%) △영원무역(22%) △OCI(22%) △케이프(20%) △삼성전자(18%) △현대엘리베이터(14%) 정도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내부 승진 또는 외부인사(사외이사) 영입에 나서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최은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똑같이 생각하는 집단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두명이라도 이사회에 들어오면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면서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윤희림 기자 wiseforest@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GLOBAL ON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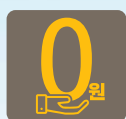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KB 증권

〈호식이두마리치킨 前 회장〉

‘직원 성추행’ 최호식 2심도 집유

재판부 “지위 이용해 강제 신체접촉 인정” 1심 형량 유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사진)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수긍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원심에서 참작돼 원심이 특별히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피해자에게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며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지위를 행사해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호식이두마리치킨을 창립해 17년 만에 가맹점 1000호점을 돌파하는 등 업계 성공신화로 꼽혔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으로 2017년 6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설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 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뉴스1

면담 앞둔 윤석열·이성운... ‘정권 수사’ 충돌하나

尹 총장 “강행 의지” vs 李 지검장 “속도 조절” 입장차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첫 대면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에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수사팀 교체가 예측되는 가운데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속도 조절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17일까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 지검장은 취임 다음 날인 14일 1차장 산하 형사부를 시작으로 각 부서의 수사 경과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으며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공판부 전환 대상 부서의 경우에도 직제개편 등 별도의 얘기는 없었다”며 “차장 배석하에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면담 보고는

통상 매주 한 번씩 이뤄져왔다. 배성범 전 지검장은 지난해 취임 일주일 만에 윤 총장에게 면담 보고했다. 다만 이번에는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배 전 지검장 때보다 늦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첫 대면 보고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여권에 대한 수사 강행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반면 이 지검장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이 올해 처음 후배 검사들에게 내놓은 메시지도 방점이 달랐다. 윤 총장이 ‘수사 연속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

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대표적 친문 인사로 ‘윤석열 견제카드’라고 평가되는 이 지검장이 임명된 이상 장기적으로 여권에 대한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전국 검찰청의 지휘·감독권은 윤 총장에게 있지만 일선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신병 처리의 최종 결정권은 이 지검장에게 있는 만큼 두 사람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지검장 입장에서 현재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내칠 수 없겠지만 인사 발령된 다른 간부가 오면 사건을 새로운 눈으로 볼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 방향이나 관점이 다르면 총장과 의견이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여성 장관 6명인데 결정권은 약해”

이정옥 장관 “여성 지위 아직 낮아” ‘배드파터스’ 무죄엔 긍정적 반응



업은 여성 임원의 의무화로 성별 다양성을 준수하게 됐다”며 다행스럽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의 2020년 키워드를 ‘평

등, 안전, 돌봄’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그간 여가부는 제일 먼저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성 평등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등의 문제를 다루고, 타 부처에도 이런 가치와 지향을 전달하는 곳으로 인식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배드파터스’ 윤영진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육비 지급은 시민적 공공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

이정옥(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여가부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한국 성(姓) 격차 지수 평가와 관련해 “여성 장관이 6명인데 결정권이 굉장히 약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WEF에 따르면 한국은 0.672(1이면 완전 평등)로 153개국 중 108위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도 굉장히 낮다”며 “지난해 여가부에서 2000개 법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회사가 32%, 없는 곳이 67%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이 통과돼 주요 결정권 영역에서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기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3월호 9월 17일 발매

연세 최장수 세대의
가장 편안한 삶을 위한
최신 100가지
최고의 방법과
꿀팁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법을
공유합니다

100가지
꿀팁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최고의 방법과
꿀팁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Well Aging

행복하게 나이들기 위한
최고의 방법과
꿀팁을
한눈에
알아보세요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들기의 품격, '어르신'이여 물어봐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엮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좀 아껴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들 어췌 하는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게다. 유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차분하게 건물을 거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현재 '극단적인 상태'까지 고려했었다는 이운경씨는 뼈의 불결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리쳤다. 투병 후반기의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직원이 추천한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5년째 '백종원' 특가 통찰한
인생과 경영 해법

“있는 그대로 재밌게
사는 것이 중년의 맛”
백우 총요섭, 물론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불기락이 파범퍼
오방난전야! 되더라고!
출타기 명인
김대균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공생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행복해 갈릴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사래기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만족하게
몰아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차적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향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1973년 장충동 개관 모습〉

국립극장 칠순 잔치

창극·발레·오페라 등 7개 국립예술단체 참여… 3~6월 성대한 기념공연

1950년 4월 29일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부민관(현 서울특별시의회) 자리에 창설된 국립극장은 이틀날 연극 ‘원술랑’으로 개관을 알렸다. 이를 공연한 신헌화 극협이 현 국립극단의 전신이다. 오는 4월이면 국립극장은 사람 나이로 ‘고희’(古稀·70세)를 맞는다.

국립극장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성대한 잔치상을 마련했다. 기념공연에는 국립극장과 7개 국립예술단체가 참여한다. 현재 국립극장 전속 단체이거나 한때 전속단체였다가 재단법인으로 독립한 예술단체들이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보낸 국립극장 = 1952년 6·25 동란으로 국립극장은 대구로 피란, 문화극장에 임시 터를 잡게 된다. 1957년 서울로 돌아와 시공관(옛 명치좌·현 명동예술극장)에 동지를 틀고 ‘명동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73년 남산에 신축된 국립극장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남산 장충동 시대를 연 뒤 복잡한 공연장도 생겼으니 전속 단체도 됐다. 국립극단, 국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교향악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가무단 등 8개 단체였다. 1977년 가무단이 그 해 완공된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전, 서울시립가무단(현 서울시뮤지컬단)이 됐다. 1981년에는 교향악



2002년 개관한 야외극장인 하늘극장.

사진제공 국립극장

서울시의회 자리에 1950년 열어 대구·명동 거쳐 남산 장충동에 정착 메인 해오름극장은 리모델링 한창 70주년 기념식 달오름극장서 개최 공연 외 학술행사·야외 사진전도

단이 KBS로 옮겨져 KBS교향악단이 됐다.

1991년 국립중앙극장으로 정식 이름이 변경됐다. 1995년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국악관현악단을 창단했다. 2000년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이 재단법인으로 독립해 서조동 예술의전당 상주단체가 됐다.

국립극단은 2010년 재단법으로 독립했다. 현재 국창극단, 국립무용단, 국악관현악단 등 전속단체는 3개다. 메인 극장인 해오름극장은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주변 주차장 등의 시설은 4월께 완성된다.

◇‘아시아 최초 국립극장’ = 김철호 국립극장장은 “우리는 아시아 최초 국립극장을 개관했다”라며 “되돌아보면 민생이나 삶 자체가 힘들고 팍팍한 시절에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점이 대단하

다”고 말했다.

70주년 기념행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다. 7개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70주년 기념공연은 3월부터 6월까지 국립극장·명동예술극장·세종문화회관·롯데콘서트홀 등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연다. 국립창극단 유수정, 국립무용단 손인영, 국립국악관현악단 김성진 등 전속단체 예술감독을 비롯 독립한 예술단의 예술감독들도 단체의 ‘친정 나들이’에 함께 했다. 국립극단 이상열, 국립발레단 강수진, 국립오페라단 박형식, 국립합창단 윤의중 예술감독이 힘을 보탤다.

국립오페라단은 코믹 오페라 ‘빨간 바지’를 3월 27~28일 달오름극장에서 초연한다. 국립극단은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만선’을 올린다. 1964년 국립극장 회극 공모에서 당선된 뜻깊은 작품이다.

국립발레단과 국립합창단은 5월 8~9일과 5월 15~16일 각각 명동예술극장에서 레퍼토리를 엄선해 ‘베스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국립창극단은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달오름극장에서 창극 ‘춘향’을 새롭게 내놓는다. 국립무용단은 신작 ‘산조’를 최진욱 안무와 정구호 연출의 협업으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초연한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3월 2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이영조 작곡의 ‘시조 칸타타’를 위촉 초연한다.

강수진 감독은 “국립극장이 70주년을 맞아 새롭게 탄생을 했다”라며 “앞으로 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극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 달라지는 국립극장…“세계 무대로 작품활동” =



1950년 4월 30일 펼쳐진 국립극장 개막공연 ‘원술랑’.

현재 리모델링 중인 해오름극장은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잔치를 열지는 못한다. 창설 기념일인 4월 29일에는 국립극장·국립극단 70주년 기념식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앞 광장에서 개최한다. 기념식 2부는 7개 단체가 함께하는 무대로 채워진다.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극장을 예술사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4월 28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리는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학술행사’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창설된 한국 국립극장 의미와 위상을 되짚어본다. 국립극장 70년사도 발간되며,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달오름극장 앞 광장에서는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념 야외 사진전도 펼쳐진다.

세계 공연예술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해외 초청



국립극장 창설 70주년 기자간담회에 모인 예술감독들. 왼쪽부터 합창단 윤의중, 오페라단 박형식, 발레단 강수진, 극단 이상열, 중앙극장장 김철호, 창극단 유수정, 무용단 손인영, 국악관현악단 김성진.

작도 관객을 만난다. 201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초연으로 주목 받은 ‘플레이어스’ ‘마오II’ ‘이름들’(연출 질리앵 고슬랭)이 6월 5~6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미국 작가 돈 드릴로의 소설 세편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총 공연시간이 9시간에 달한다.

김철호 극장장은 “대중적인 수요를 행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립극장은 전문가를 비롯해 특수한 수요에도 호응을 해야 할 공공성을 가진다”라며 “우리 예술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주년 기념공연은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매매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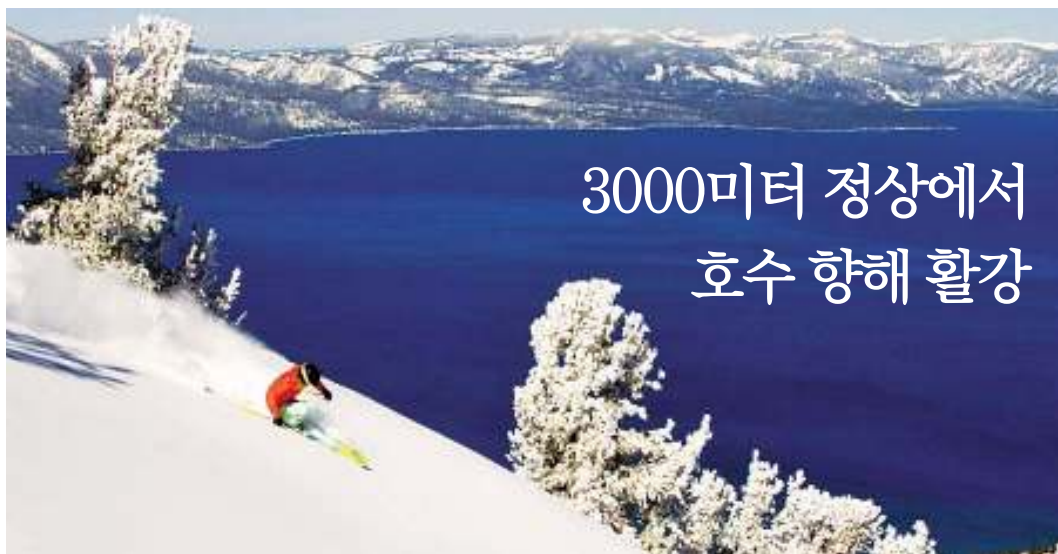
알아두는 여행 tip 美 스키 천국 '네바다'

‘헤븐리 마운틴’ 세계 최대 스키 리조트 ‘다이아몬드 피크’ 아이 동반 가족에 딱 ‘리 캐니언’ 라스베이거스서 차로 45분

네바다는 미주 최고의 겨울 여행지로 꼽힌다. ‘눈으로 덮인’이란 뜻의 스페인어 ‘네바도’(nevado)에서 유래할 정도로 상당한 적설량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레이크 타호를 바라보며 최고급 설지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네바다주를 찾고 있다.

네바다는 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리노와 레이크 타호에 인접해 있는 스키 리조트 뿐만 아니라 최대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에서 데이투어 방문이 가능한 리조트까지 다양한 스키 리조트를 보유하고 최대 4월까지 운영한다. 네바다 관광청을 통해 스키 리조트 3곳을 소개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리조트 ‘헤븐리 마운틴 스키 리조트’ = 헤븐리 마운틴 스키 리조트는 레이크 타호 남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스키 리조트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약 3000미터



세계 최대 규모 스키 리조트 ‘헤븐리 마운틴’.

사진제공 네바다 관광청

높이의 정상에서 눈 앞에 펼쳐진 레이크 타호를 바라보며 활강하는 경험을 만끽할 수 있으며 스키나 보드 등의 겨울 스포츠 외에도 2인승 마운틴 코스터, 스노 튜브, UTV 가이드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하다.

◇가족 여행객이 사랑하는 ‘다이아몬드 피크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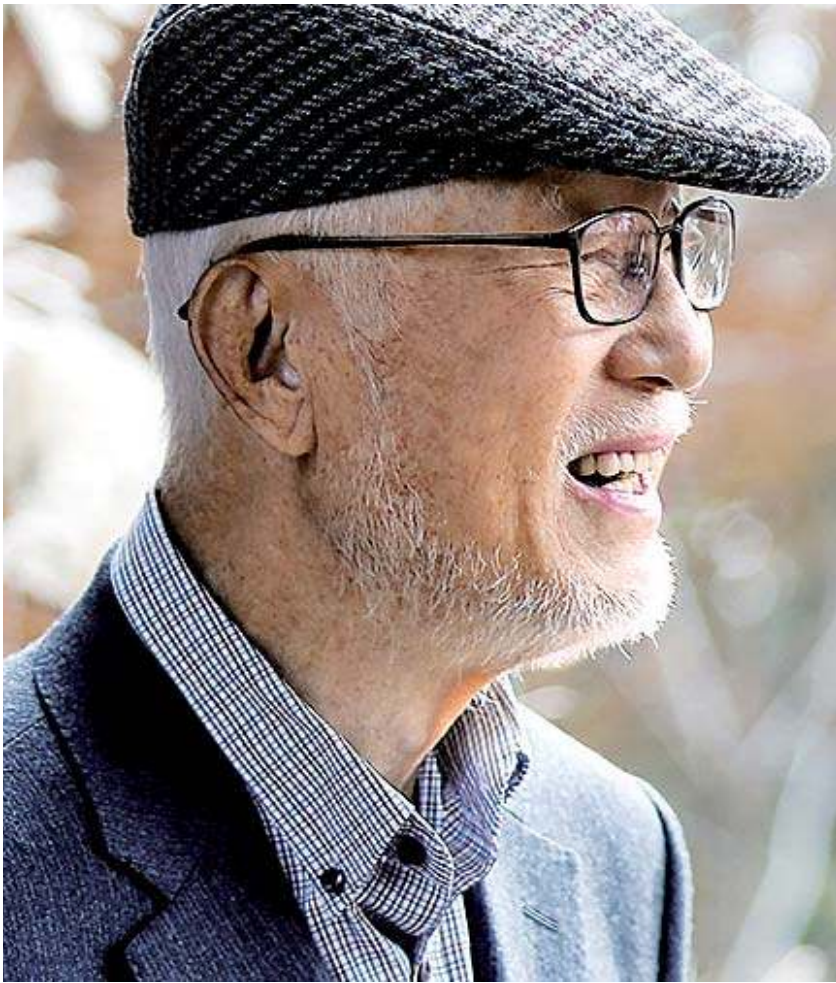
키 리조트’ = 레이크 타호 북쪽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피크 스키 리조트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특히 어린이 전용 강습 프로그램, 어린이 스키 센터가 유명하며, 만 6세 이하는 무료로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 여행객에게 가성비 높은 리조트이다. 타 스키 리조

트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숙박, 주차장, 슬로프 및 레스토랑 등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고급과 초보 모두에게 좋은 ‘리 캐니언’ = 지난 12월에 오픈한 리 캐니언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약 4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낮에 스키를 즐긴 뒤 저녁 때 다시 라스베이거스 도심으로 돌아가는 데이투어 여행이 가능한 리조트이다. 30개의 트레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중급에서 고급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초보 스키어를 위한 트레일 및 스노 튜브 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며 만 13세 이상 방문객 대상으로 무료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항 연결된 네바다 =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면적의 네바다 주는 북쪽으로는 오리건과 아이다호, 동쪽으로 유타와 애리조나, 남쪽과 서쪽으로 캘리포니아와 접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 명의 방문객들이 관광, 엔터테인먼트, 국립공원, 카지노, 아웃도어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즐기 위해 네바다주를 방문한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인천-라스베이거스 직항편 및 여러 항공사의 리노 경유 편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김소희 기자 ksh@



“윤리경영 위해 헌신 죽어도 될 만큼 후회 없이 살았다”

KSS해운 세운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

1935년에 태어난 박종규 씨는 무슨 일을 하든 올인했다. 중도에 포기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정도(正道)와 성실(誠實)을 깊게 뿌리 내린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두 번의 암 선고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 내지 않고 “까짓것 죽어주지” 하며 담담하게 처내는 의연한 어른을 만났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알짜’이자 숨겨진 강자로 불리는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부른다. KSS해운은 해운업계에서 강소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KSS해운을 창업한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 역할만 하고 있는 그는 KSS해운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로 투명경영을 꼽는다. 자신이 세운 기준을 평생 추구했고, 그 결과로서의 기쁨을 오롯이 누리

하역과 인도가 차질 없이 이뤄졌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였다. 그렇게 KSS해운의 성장이 지속되던 25년 차, 박 고문은 수장 자리에서 내려와 회사의 고문이 되었다.

그렇다면 KSS해운은 그의 자식들이 맡게 되었을까? 아니다. 정도경영, 윤리경영이라는 그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 일. 회사는 그의 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후배 전문 경영인이 맡았다.

25년차에 전문경영인 체제 자식에게 안 맡긴 이유?

‘자립심’이 진짜 유산이니까

“아들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갔죠. 지금 서울에 한 명, 미국에 두 명 있는데 미국에 간 두 명은 과학자예요. 서울에 있는 아들은 사업가이고. 다들 나한테 원조 받은 일도 없고, 원조 줄 아버지도 아니고... 다만 독립심을 길러줘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 ‘각자 자기 살길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서로 신세 지지 말자. 나도 아무 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이렇게 됐으니까’라는 생각이었죠. 유산 많이 남겨야 소용없어요. 독립적인 정신을 갖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유산이에요.”

제2의 인생, 바른경제동인회

그러나 박 고문이 KSS해운의 대표 자리를 물러날 즈음은 또 다른 제2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던 때였다. 1993년에 바른경제동인회를 창설했다.

“1990년대 초는 노동조합운동이 격화되어 혼란한 시대였죠. 그때 ‘회사를 노사 공동의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자’는 생각에 바른경제동인회를 만들었죠.”

바른경제동인회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투명성이었다.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그러려면 CEO의 의지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어요. 현실은 돈을 갖다 쥐야 일이 됐으니까. 그래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했지만, 사회 전체가 워낙 불투명하니까 힘들었죠.”

박 고문이 바라본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지하자금이었다. 세무 신고를 하는 음식점이 30%도 안 되던 때였다. 나머지는 다 탈세였던 셈이다. 그

러니 지하자금도, 뇌물도 엄청나게 돌았다. 그런 현실을 보다가 그는 마침내 세상을 바꿀 해법을 찾았다.

지하자금 줄인 ‘신의 한 수’

“지하자금을 정리해야겠다, 그래야 투명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지하자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 바로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활성화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도록 해서 신용사회를 만들자는 바른경제동인회의 아이디어는 지하자금의 양성화, 경제의 투명화와 함께 내수시장의 양적 증가와 자금 유동성 활성화를 이룰 방법이기도 했다. 때마침 IMF 체제를 돌파해야 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선택이 없었을 것이다. 결국 바른경제동인회의 솔루션이 채택되어 1999년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지하자금의 축적은 줄어들고 전자화된 세금 징수와 보다 투명화된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 국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박 회장이 만든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셈이다.

2004년이 되자 그에게 큰일이 맡겨졌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이다. 박 고문을 그 자리에 올린 사람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년 후배인 고건 전 총리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 정지가 되자 고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한사코 거절하던 그를 결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그는 위원장 일을 하며 정부와 많이 싸웠다고 회고한다. 정치 논리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려는 걸 막는 게 그의 일이었다. 그는 2006년까지 위원장 일을 했다.

바른경제동인회 창립 이끌고 대학 후배 고건 前총리 부탁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맡아

그런데 그 시기에 그가 싸워야 했던 대상은 또 있었다. 2006년 그는 서울을 떠나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정착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담담하게 이유를 밝혔다.

“죽으러 간 거지. 위암에 걸렸거든.”

죽기 위해 제주도로 가다

박 고문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받을 때 의학 책을 보게 됐다. 책에는

위암 이어 방광암 투병

‘까짓것 죽어주자’며 제주행

‘자연치유 기적’ 새 삶 얻어



“위암 4기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사망률이 90%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놀라진 않았어요. 나이 71세에 암에 걸린 거니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죽을 때 서울에서 죽고 싶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는 데는 아파트, 밖을 나가면 아스팔트잖아요. 마지막이라도 자연 속에서 죽고 싶었죠.”

그는 병원에서 권한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아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났다. 죽을 장소를 찾아간 셈이었다. 그리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한라산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했다. 그러다 보니 암이 자연스럽게 나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사람에게는 자연치유 능력이란 게 있는 거죠. 항암 치료 받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거절한 바람에 살았어요. 역설적이죠.”

자서전을 반드시 써야 했다

그러나 박 고문의 시련은 위암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7년이 되자 또 다른 암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방광암이었다.

“괴로웠죠.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견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랐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치료받다가 죽을 거 같았어요. 여섯 번 하

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방사능 치료로 바꿔 주더라고요.”

그의 몸에는 아무래도 방사능 치료가 맞았나 보다. 그는 다시 한번 기적처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때 그의 책 ‘직원이 주인인 회사’가 쓰였다.

“이번에는 도저히 못 살 거 같았죠. 그러니까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죽으면 안 되겠다, 책 한 권 남겨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항암주사를 맞으며 썼죠. 쉬었다가 조금 쓰고 힘들었죠. 제목을 뭐로 할까 했는데, 적당한 게 없어서 직원들에게 책을 보내 ‘자네들이 읽고 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추천한 게 이 제목이었죠.”

‘직원이 주인인 회사’ 자서전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삶

사회에 부가가치 남겨 행복

직원들이 제목을 지어준 책. 그 과정 자체가 자기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지금 사장은 내 의견이 들어간 사람이야. 되레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 (웃음) 내가 그만둘 때 지금 사장이 대리급이었으니까 특별히 만난 일도 없어요. 그런데 경영을 너무 잘해.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 더 잘한다는 증거죠.”

그가 행복한 이유

창립자이지만 박 고문은 회사 경영에 일절 간섭을 안 한다. 보고도 안 받는다.

“배당만 잘해야” 그러지요. 대신 투명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죠.”

인터뷰 말미로 갈수록 박 고문 목소리에는 웃음이 많이 더해졌다. 그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다. 암에 두 번이나 걸리면서도 겁을 안 냈고, 되레 ‘까짓것 죽어주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 긍정성은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살아왔고 이뤄낸 성과들을 확인했기에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이다. 그의 정도경영, 투명경영이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다.

“회사를 세웠는데 직원들이 주인처럼 하니까 기업인으로서 성공한 거지요. 부의 창조만이 아니라 사회에 부가가치를 남긴 것 같아 그게 가장 행복해요. (웃음)

글/김영순 기자 kys0701@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유한양행 유일한’ 롤모델

밀수 근절하고 신뢰 쌓아

KSS해운 강소기업 육성

는 중인 그는 제주도에선 칩거하며 저술과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KSS해운은 해운 운송 업체로서 가스, 석유, 화학제품의 운송을 전문적으로 맡는다. 초대형가스선(VLGC) 선단으로는 국내 최고, 세계 9위의 규모를 자랑하며 2018년 매출 2025억 원에 영업이익 실적 471억 원에 이르는 견실한 강소기업인 KSS해운은 올해로부터 50년 전인 1969년, 박종규 고문이 맨손으로 세운 회사다.

난생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만연했던 선원들의 밀수를 근절하며 회사를 정직하게 경영하려고 노력했다. 그 노력의 근저에는 독립군 출신이며 민족자본 형성을 위해 유한양행을 세워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된 유일한 박사가 있었다.

“꿈도 없이 월급쟁이 생활을 10년 했어요. 그때도 유한양행의 유일한 씨를 존경해서 내가 만약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유일한 씨처럼 해야겠다는 게 꿈이었죠. 어떻게 하든 사업을 하고 성공도 했는데, 유일한 씨처럼 한 것뿐이에요. (웃음)”

KSS해운, 스스로 떠나다

밀수를 근절하자 사고가 안 생겼고 화물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 모든 게 국민의 힘”

국회 통과 ‘유치원 3법’ 주도한 박용진 의원

국가 할 일 이제야...모든 사립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은 아나 이젠 ‘사립 교사 처우 개선·국공립 질 높이기’ 함께 이뤄내야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는 중간중간에 알긴 알았어요. 다들 어려울 것이라 했고, 끝내지 못할 것이라 말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도 ‘국회의원이 뭐 하나 잡았으면 끝을 봐야지’ 하는 생각이 불끈불끈 들었습니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66일 만에 통과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해냈다. 처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간 토론회·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이나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기간이 330일을 넘긴 383일 만에 본회의에 올랐다. 13일 법안이 통과된 순간 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열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수많은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후유증일까. 박 의원은 16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첫마디에 현재 병원에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자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나니 몸살이 났다. 신기하지 않나. 곧 회복할 거다”며 멋쩍게 웃었다.

“링거를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박 의원은 지친 목소리에서도 유치원 3법이 통과됐던 당시의 기쁨을 그대로 기억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과 지지, 응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국민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 참 다행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애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공을 돌렸다.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발목이 잡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히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한국당이 퇴장한 후 통과됐다. 박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에서 삭발이나 단식은 뭐든 할 수 있지만, 다 협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며 “협상을 핑계로 발목부터 잡으며 ‘시간아 가라’는 태도는 국민에게만 피해가 갈 뿐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도 아니

고 민생법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은 아니고 그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며 “유아 교육장에서 고생하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노고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법 후속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엄마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통학 차량과 방과 후 운영 문제가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마른기침 와중에도 유 장관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그는 “유 장관이 출마하지 않고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며 “유 장관이 유치원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 통과 후에도 제일 먼저 약속했다. 유 장관의 의지가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토부 2차관에 손명수 기조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손명수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서울 용산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항공정책실장, 교통물류실장 등을 거쳤다.



정일환 기자 whan@

두산건설, 김진호 사장 선임

두산건설은 16일 이사회를 열어 신임 사장에 김진호 새서울철도 사장을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진호 신임 사장은 1996년 두산건설에 입사해 경영지원부장, 건축비즈니스그룹장(BG장) 등을 거쳤다. 작년부터 신분당선 사업을 하는 두산건설 자회사 새서울철도의 사장을 지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쿠첸 대표에 삼성 출신 박재순 씨

쿠첸이 삼성전자 출신의 박재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재순 대표이사는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 뒤 빈 지점장을 포함한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업무를 담당했다. 2004년부터는 캐나다 법인장, 미국 CE 부문장, 한국 총괄, 중국 총괄 및 생활가전 전략 마케팅 팀장을 역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한동근 조직·재생의학회장 취임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한동근 교수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한국생체재료학회 회장을 거쳐 지난해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특훈교수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안유수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이사장 설 맞아 4847가구 쌀 기부...22년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안유수 이사장(에이스침대 회장·사진)이 설을 맞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억1000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4847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탁된 백미는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4701가구와 소년·소녀가장 146가구 등 총 4847가구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안유수 이사장의 기부 활동은 올해로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199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소외 계층을 위해 백미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기증된 백미의 누적량은 10만1000포대(1포, 10kg)로 약 1001톤에 달한다. 비용으로 환산 시 현재까지 누적이부금은 약 23억 원이다.



최영희 기자 che@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부산서 올들어 첫 ‘CEO 현장집무실’



신한생명은 15일 부산에서 2020년 첫 번째 ‘CEO 현장집무실’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CEO 현장집무실’에는 부산권역 고객 및 설계사 28명이 현장 패넬로 참여했으며, 성대규<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사장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FC사업본부장 등이 본사 패넬로 참석했다.

‘CEO 현장집무실’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영활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주요 거점지역으로 찾아가는 신한생명의 대표적인 고객참여제도다. 지난해 8월 경북권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의 의견이 즉시 관련부서에 전달돼 상품 및 서비스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CEO가 직접 소통하는 만큼 검토 또한 신속하게 이뤄진다.

서지연 기자 sjy@

바다에 빠진 트럭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이웃 생명 구한 김진운·하경민 씨 ‘LG 의인상’

LG복지재단은 전남 여수시에서 사고로 바다에 추락한 트럭에서 여성 2명을 구조한 김진운(47·왼쪽 사진) 씨와 경남 창원시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주민을 대피시켜 추가 인명 피해를 막은 하경민(35·오른쪽)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진운 씨는 4일 오전 전남 여수시 소호항 인근 도로에서 화물트럭이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시멘트 구조물에 부딪힌 뒤 3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목격

했다. 김 씨는 즉시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뒷부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트럭으로 헤엄쳐 갔고, 차 안에 갇혀 있는 두 여성을 구했다. 김 씨는 차가운 겨울 바다 속에서 20여 분 동안 차 유리창을 깨며 사투를 벌이다 손을 많이 다쳤지만, 침착하게 두 여성을 진정시키고 119에 신고한 뒤 출동한 구조대에게 이들을 인계했다.

한편, 하경민 씨는 지난해 11월 배우자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동에서 화재가 발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모잠비크 방문 “현지사업 지원 약속”

니우시 대통령 취임식도 참석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4~15일 모잠비크를 방문해 현지에서 진행 중이거나 신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16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채 사장은 14일 아프리카 남동부 국가 모잠비크의 국영 석유가스공사(ENH)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15일에는 필리페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채 사장은 이번

방문에서 천연자원을 활용해 국가경제 부흥을 추진하는 모잠비크와 안정적인 경제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한국 간 이해가 일치하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공사가 참여 중인 모잠비크 Area4 사업과 현재 검토 중인 신규 탐사사업 등에 대한 모잠비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받았다.

가스공사가 2007년부터 참여하는 Area4 사업은 국내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을 확보한 것이다. 여기에서



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 씨는 곧바로 불이 난 아파트로 달려가 1층부터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각 층 현관문을 일일이 발로 차고, “불이야”라고 크게 외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화염과 연기가 가득 찬 11층에 도착해서는 화상을 입은 채 계단에서 꼼짝하지 못하던 여성을 발견해 직접 1층까지 엮고 내려왔다.

송영록 기자 syr@



채희봉(왼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모잠비크 국영 석유가스공사(ENH)에서 오마르 미따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가스공사

발견된 천연가스는 가스공사 지분 10% 규모로 한국 모든 국민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의전비서관 박진호

◆KT ◇전무 승진 △커스터머&미디어 부문 뉴미디어사업담당 김훈배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김영호 △기업사업부문 Biz사업본부장 김봉균 △융합기술원 Convergence연구소장 홍경표 △경영기획부문 SCM전략실장 박종열 △KT DS 경영기획총괄 장치호 ◇상무 승진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영업본부 5G영업담당 구강본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전략채널본부 MVNO담당 채정호 △커스터머&미디어부문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 미디어사업담당 이성환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수도권서부고객본부 구로지사장 석은권 △커스터머&미디어부문

부산고객본부 영업기획담당 엄재민 △커스터머&미디어부문 제주고객본부장양창식 △기업사업부문 기업사업전략담당 홍계성 △기업사업부문 Biz사업본부 Biz사업설립담당 김재권 △마케팅부문 AI사업단 AI사업담당 임채환 △미래플랫폼사업부문 에너지플랫폼사업단 에너지플랫폼전략담당 이창제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운용본부 네트워크관제1센터장 김준수 △네트워크부문 대구네트워크운용본부장 박종호 △IT기획실 소프트웨어개발단 IoT/Smart-X개발P-TF장 조성은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5G TF장 이종식 △경영기획부문 전략기획실 그룹부동산담당 홍성필 △경영기획부문 재무실 재원기획담당 조일 △경영기획부문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김상균 △경영관리부문 경영지원실 노사협력2담당 김무성 △윤리경영실

윤리경영2담당 이원호 △비서실 2담당 최시환 △[재적전출] 지니뮤직 경영기획총괄 조성수 △비씨카드 경영기획총괄 경영지원담당 채병철 △KT DS 플랫폼서비스 본부장 제갈정숙 △플레이D 대표이사 허욱현 ◇상무보급 승진 △권갑석 △오성민 △김주대 △송창석 △이원만 △안훈 △정선규 △홍용식 △임경준 △윤경하 △이경석 △김중곤 △이흥규 △서정판 △이진수 △김상근 △최세준 △이택훈 △엄운수 △김종철 △한미숙 △정채운 △도만희 △이재철 △감창식 △정호달 △박환석 △홍해천 △이재현 △최규철 △윤두만 △신영운 △장인욱 △이창만 △이길욱 △이인원 △김용 △모순래 △최승모 △이호재 △강현구 △김태식 △손희수 △임호로 △한상훈 ◆NICE그룹 △지니틱스 대표이사 겸 서울전자통신 대표이사 호경근

부음

▲김영희(전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씨 별세, 박영애(소설가) 씨 남편상, 김준우(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프로)·소연 씨 부친상, 이승범(재미 사업가) 씨 장인상, 조윤일(SC제일은행 통역사) 씨 시부상 =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3410-6920 ▲조병양 씨 별세, 임계현(한국기계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씨 모친상 = 16일, 충남 보령시 보령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41-930-5631 ▲조응현 씨 별세, 조영돈(선교사)·영옥(기획재정부 서기관)·은경 씨 부친상, 홍기선(성의중학교 교감) 씨 장인상 = 1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227-7591

조석의 遠見明察

(원견명찰)



현대일렉트릭 사장

시장경제 체제는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국가 안에서 경쟁에서 패한 국민을 보듬어 안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이라는 언어가 사라졌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것이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사라진 언어가 된 나라는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다.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으나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아침 해는 다른 날 아침 해와는 달리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각자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로운 1년을 다짐한다. 사회적으로는 남북문제의 평화적인 해법, 경제 활성화,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타협 등을 기도해본다. 특히,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통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융광로의 쇄물처럼 녹아 새 시대의 희망으로 뭉쳐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천문(天問):하늘에 묻다’를 보았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꿈과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고 우리만의 기술로 하늘을 보고 우리에게 맞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열정을 보았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큰 나라에 둘러싸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많은 것을 참는지도 아픈 마음으로 같이했다. 그리고 새삼 절감하게

됐다. 뜨거운 가슴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너무 적고, 더 큰 성취를 위해서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가 선택한 시장경제 체제는 경쟁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개인의 욕망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개인은 타고난 재능과 성실히 일하는 노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평가받는다. 기업은 경영자의 리더십,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영업적 능력, 조직원의 단합 등이 필요하다.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시장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한다. 적당히 타협하고 승부를 미루는 순간 사회의 발전은 멈추고 만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승패를 갈라야만 한다.

정부는 국가안에서 경쟁에서 패한 국민을 보듬어 안는다. 재기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복지의 혜택을 주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게임의 룰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품이 넓지 않으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야 하고, 경쟁의 승자가 주변을 위하여 기여이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성장하지 않는 경제는 분배도 할 수 없기에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역사에 남는 좋은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잃지 않은 정부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균형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다.

시아를 국제사회로 돌려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사회는 국가와 국가의 힘이 부딪히는 곳이다. 경쟁력이 없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거두어 주지 않는다. 국가와 국가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어떠한 국제 규범도 자국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 19세기 근대화에 실패한 대한민국은 100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왔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비로소 국가로서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력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다. 밝은 굵

어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교육열,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국산화하는 집념, 거북선 그림 하나로 선박 건조를 수주하는 도전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 경제가 가능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치열한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본능적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이라는 언어가 사라졌다. 금기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칠 수 있으나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세계적인 언어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보여줄 수 있는 세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언어를 통해 알 수 없는 세계는 볼 수 없는 세계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경쟁력이 사라진 언어가 된 이유는 남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경쟁력이 사라진 언어가 된 나라는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없다. 냉정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이다.



전정일의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겨울을 맞아 사나운 날씨가 이어지는 탓에 온통 움츠려 있는 제 모습과는 달리 식물원의 나무들은 웬지 모르게 의연하게 보입니다. 소나무처럼 녹색 잎을 여전히 달고 있는 나무들뿐만 아니라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줄기와 가지를 모두 드러낸 나무들조차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식물원을 둘러싼 숲으로 발길을 옮겨 봅니다.

이곳의 나무들도 의연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식물원 안에서 돌봄을 받는 나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곳에는 많은 나무들이 뭉쳐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나무들이 뚝뚝 떨어져 홀로 서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무는 금세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꺾끗하게 서 있기도 합니다.

숲속에서 사람의 손길 없이 자유롭게 사는 나무들은 식물원에서 돌봄을 받는 나무들과 달리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

아갈까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나무들이 미세하게 다른 주변 환경 특성에 맞춰가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가 땅속 뿌리가 뻗는 모양입니다. 어떤 나무들은 뿌리가 얇고 넓게 뻗는 반면, 어떤 나무들은 깊고 좁게 뻗습니다. 전문용어로 앞의 경우를 ‘천근성’이라 부르고 뒤의 것을 ‘심근성’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된 용어 그대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넓게 사는 나무’ 또는 ‘깊게 사는 나무’라고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 그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넓게 사는 나무는 얇게 사는 것이기도 하고 깊게 사는 나무는 좁게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통 천근성 나무들은 모여 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등 주변 환경에 잘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근성 나무들은 혼자서도 꺾끗하게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넓게 사는 나무, 깊게 사는 나무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런 경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알고 지내지만 아주 깊은 속내까지 털어놓을 친구는 정작 별로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깊이 사귀는 친구는 있되 주변에 사람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무나 사람이나 넓게 사는 것과 깊게 사는 것 중에 어떤 편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식이나 교양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넓게 많이 알지만 깊이가 얇은 사람을 ‘천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천박함’의 부정적 의미가 사람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로 받은 달력을 한 장 두 장 넘겨 보면 서 울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까 생각에 잠겨봅니다. 언제인가부터 매년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 느끼면서, 나이가 드는 걸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해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작성했던 일정표를 참고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많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달력이나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그간 받았던 수많은 명함과 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살펴보는 것도 한 해를 시작하는 또 다른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함을 주신 분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메모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함 또는 전화번호의 주인공은 도저히 얼굴이나 저와의 관계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연락했던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저는 이분들과 얹은 만남을 가졌던 것이고 그분들의 명함과 전화번호는 결국 제 손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명함 한 장을 파쇄하고 전화번호 하나를 지울 때마다 혹시 제가 점점 더 ‘천박’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존경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꿈을 함께 나눴던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더 자주 마주앉을 것을 새 달력을 넘기면서 다짐해 봅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자오쯔양(趙紫陽) 명인

“건강한 경제는 정치개혁에 달려 있다.” 중국 정치가. 문화대혁명으로 숙청되었 다 복권돼 중국 공산당 제10기 중앙위원, 청두 부대 제1정치 위원을 맡으며 농업 진흥과 기업 자주권을 확대시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택 연금을 당했을 때 틈틈이 남긴 비밀 육성 테이프를 옮겨 그의 사후 출간된 자서전 ‘국가의 죄수’에 나왔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919~2005.

☆ 고사성어 / 경제제민(經世濟民)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 경제는 진(晉)의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가 원전. ‘상서(尙書) 홍범(洪範)편을 읽으면 기자(箕子)가 세상을 경륜할 만한 책목이었음을 알고, 구술(九術)을 읽으면 범려(范蠡)와 문종(文種)이 나라를 일으킨 책략을 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민은 서경(書經) 무성(武成)편에 나온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 신들은 나를 도와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신의 수치가 될 일은 하지 마소서.”

☆ 시사상식 / 국부펀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 2005년 출범한 한국투자공사(KIC)는 2018년 말 기준 순자산가치로 1316억 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세계 순위는 2016년 6월 기준 미국 2조8000억 달러, 일본 1조2000억 달러, 노르웨이 8000억 달러 순이다.

☆ 신조어 / 편슈머

편(Fun: 재미)과 컨슈머(Consumer: 소비자)의 합성어. 소비과정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 유머 / 불운

가난한 사람이 “신부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손대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우산을 팔면 비가 오지 않고, 수의를 팔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하소연했다.

신부의 처방. “신도여! 댁 장사를 하세요. 떡을 팔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겁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조 성 준 IT중소기업부/tiatio@

中 게임 판호사태, 이제 해결해야 할 때

다. 일명 ‘먹튀’ 게임도 등장했다. 한글 번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게임을 국내에 출시해 유저들로부터 단기간 결제를 유도하고 서비스는 방치하는 게임이다. 많게는 수천만 원을 결제한 이용자들이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게임을 두고 환불소송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느장 대응이다. 실제 2017년 3월 사드 사태 발발 이후 외교부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한국게임학회는 “외교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한 바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이 중국의 외자판호를 발급받아 진출하는 것을 올해 속원으로 여기는 곳도 있다. 중국 판호 신청을 하고 대기하고 있다는 A게임사는 올해를 마지막노선으로 보고 있단다. 이미 모든 자금을 중국시장 진출 게임 개발에 쏟아부은 탓에 또 다른 게임을 개발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 판호 문제는 기업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외교부는 중국 판호 발급 거부 문제를 이제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게임 강국이었던 한국이 어쩌면 게임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슈&인물

非수도권 출신 첫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박재홍 영무건설 대표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저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현장형 리더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회원 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영무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은 지난해 말 주건협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7600여 개 회원사 중에서 서울·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협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동 주건협 사옥에서 박 회장을 만나 신임 협회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아까 무겁다”… 회원사들과 직접 소통 강화할 것 = 최근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단 고강도 주택 규제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실물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위기와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 여건 역시 갈수록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주택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주택업계의 대표단체인 주건협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아까가 무거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회원사들의 막강한 지지를 통해 자리에 오른 만큼 지금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택업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 회장은 “임기 동안 전국의 회원사가 편안하게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위한 울타리이자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그간 소홀했던 협회 중앙회와 각 지역회 간 소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회장은 13개 시도를 직접 돌며 회원사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모두가 서울 집값만 쳐다보는 사이, 지방 주택시장은 우리의 관심 밖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의 몰락은 이사업·중개업 등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경제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 부동산시장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일괄적인 부동산 대책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필요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업계 현안 해결에 발벗고 나설 것” = 요즘 부동산 건설업계는 한목소리로 “힘들다”고 외치고 있다. 특히 중소 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주건협은 상황이 더 녹록지 않다. 이에 박 회장은 주택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건물하자·보수 관련 제도 개선이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현장에서는 기획변호사들의 선동으로 인한 하자소송으로 주택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광주·전남도회장 시절부터 소외계층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행복동지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공적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집값만 바라보는 사이

관심 밖 지방은 내리막길

지역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돼

하자 보수·감리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정상화 역량 집중

회원사 경쟁력 강화도 추진

임대주택, 분양주택과 품질 비수

62% 수준 표준건축비 인상해야

제2보증사 설립도 중장기 추진

실정”이라며 “소송 남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내 이의 또는 소송 제기가 없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간주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정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사를 할 때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및 품질·안전관리를 감독하는 감리자의 고이나 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감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 감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이 수년간 요구해왔던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회원사들의 숙원 중 하나다. 박 회장은 “현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품질 수준이 유사함에도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집을 지어놓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과 함께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해 표준건축비 조정을 정례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 회장은 회원사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서 회원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제2보증사 설립이 그것이다.

박 회장은 “현행 주택 공급체계에서 분양보증을 받아야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보증을 전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일선 장구에서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HUG는 과도한 보증료율을 적용해 매년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도 보증료를 인하에는 소극적이어서 주택업체들의 원

★박재홍 회장은…

박 회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대학원에서 토목환경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무건설 대표이사로 2011년 은탑산업훈장, 2015년 살기 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한 2014~2016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 감사와 2017~2019년 협회 광주전남도 회장을 역임했다.

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설립까지는 정부와의 입장 차, 출자금 마련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제2보증사 설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동반자로서 제2보증사 설립 검토는 필연적인 부분”이라며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기보다 협회는 제2보증사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공헌사업에 관심 많아… 안정된 주거 환경 중요” = 박 회장은 평소 사회공헌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주건협 광주·전남도회장 시절부터 사회복지시설·사회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행복동지사업’을 꾸준히 펼쳐온 것이다. 박 회장은 “주거 환경이 나쁜 사람도 나쁜 길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지방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회공헌활동을 광주에서부터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앙회 회장으로서 주건협이 공적단체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그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협회는 그동안 협회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봉사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며 “특히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1994년부터 27년 동안 190억여 원을 투입해 1805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로 고쳐줬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주택사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회원사들이 원하는 협회의 역할은 개개의 주택업체가 해결하기 힘든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 달라는 것”이라며 “회원사들도 주택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사설

라임 사태 금융사기, 불법 철저히 밝혀 엄벌해야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최악의 금융사기 로까지 번지고 있다. 펀드 운용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수익률 부풀리기, 투자자 기반, 정상 펀드의 부실 펀드 ‘둘러막기’ 등으로 연쇄 손실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는 양상이다. 펀드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주장도 계속 나오고,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라임운용은 최근 은행·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사들에 4월부터 만기 예정인 인슈어런스무역금융펀드의 환매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펀드 판매금액은 320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펀드는 미국 운용사인 IIG의 ‘폰지사기’에 휘말려 자산이 동결된 ‘플루토 TF-1호’와 달리 무역보험으로 안정성을 보강한 상품이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과 코스닥 벤처투자 펀드들도 부실 펀드에 투자하는 불법적인 둘러막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라임의 작년 10월 1~2차 환매 중단으로 묶인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직접적인 피해 금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그동안 라임의 펀드 판매 금액 총 5조 7000억 원 규모가 모두 부실화될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라임 펀드 판매를 대행한 국내 은행 및 증권회사 등은 모두 16곳이다.

투자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상품의 구체적 내용이 나 원금 손실 등의 위험, 환매 지연 가능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입증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원도 사태 악화에 손놓고 있었다. 작년 7월 수익률 조작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필요하면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방관했다. 이어 10월 6200억 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단순한 유동성 문제로 본다”고 넘겼다. 11월에야 “유동성 문제가 아니고 부실이 심각하다”고 뒷북을 쳤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나오면서 이제야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

금융시장의 신뢰 추락은 금융산업 발전의 최대 해악이다. 하루빨리 수습에 나서야 한다. 저금리 추세에 사모펀드 시장은 갈수록 커지는데,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후관리 강화 및 불법행위 대비책, 투자자 보호가 허술해 혼란이 가중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은행들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팔면서 불완전판매로 크게 말썽을 빚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라임이나 판매사의 위법 사항을 철저히 밝혀내고, 사기 행위를 엄벌해 시장질서의 규율을 세워야 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정비도 서둘러 후진적 금융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남산의 부장들’은 왜 박정희를 쏘았는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제목부터 이미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과거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남산은 박정희 정권 18년간 대한민국 삼권을 쥐고 흔들었던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곳이다. 영화의 원작은 1990년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당시 기사 제목도 ‘남산의 부장들’이었다. 2년 2개월간 연재되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꼽히는 10·26사건만을 영화는 집중한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장(이병헌)이 대통령(이성민)을 시해한다.

이 기막힌 현대사의 비극이 영화로 안 만들어지면 이상한 일이다. 사실 이 소재는 이전에도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된 적이 있다. 임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 그사람들’은 10·26을 블랙코미디로 담아냈다. 그러나 ‘내부자’를 만들었던 우민호 감독은 이번에는 철저히 사실을 바탕으로 둔 다류적 연출 형식으로 당시의 비극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죽기 4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카메라는 박통과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경호실장(이희준)이 서로 얹히면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관계를 사실적 기법으로 담담하게 따라간다.

처음에는 충성경쟁으로 시작했다가 이

후에는 권력소외에 따른 모멸감에 몸서리 치다가 결국 최고 권력을 거세하고 그 자리에 오르고자 했던 김규평(김재규)에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하도록 영화는 시종 일관 도와준다. 등장 배우들도 실제 인물에 최대한 맞췄다. 이성민은 박정희와 비슷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 귀를 닦게 분장했다. 남산의 실력자로 나오는 김규평과 박용각(곽도원)은 김재규와 김형욱의 캐릭터를 연기에 잘 녹여냈다. 대통령 경

호실장으로 당시 호가호워했던 차지철이 박상천(이희준)으로 나오는데 배우는 25kg을 증량했다고 한다. 당시 면면을 기억하는 분들은 상당히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병헌의 모습에서 김재규의 외모를 떠오르긴 쉽지 않았다는 정도.

영화 제목은 ‘남산의 부장들’이지만 실제로는 김재규가 왜 박정희를 쏰 수밖에 없었나를 주된 뼈대로 삼았다. 5·16 혁명(?)에 대한 배신으로? 충성경쟁에서 밀린 보복으로? 아니면 최후진술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답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찾아야 할 듯하다. 다만 독재자를 죽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의 행변도 되새겨볼 여유가 생겼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THE FIRST SUV BY GENESIS.
GENESIS GV80



GENESIS.COM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단 1677-70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0 D 2WD (27): 복합 11.6km/l(도심 10.4km/l, 고속도로 13.3km/l) CO2 배출량 167g/km(1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180kg(1차 등 950kg) ▶ 3.0 D 2WD (197): 복합 11.2km/l(도심 10.5km/l, 고속도로 13.7km/l) CO2 배출량 164g/km(1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155kg(1차 등 950kg) ▶ 3.0 D AWD (27): 복합 10.6km/l(도심 9.7km/l, 고속도로 11.2km/l) CO2 배출량 184g/km(1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260kg(1차 등 950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위 연비의 제한은 7인승 옵션 선택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 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차량대리점의 카미스타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빠른 구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